

錢乙의 醫學思想에 關한 研究

吳峻煥 · 金基郁 · 朴炫局¹⁾

A Study on *Qian Yi*(錢乙)'s Medical Thought

Oh Jun Hwan · Kim Ki Wook · Park Hyun Kook

Throughout this paper, I adjusted the study of *Qian Yi*(錢乙)'s Medical Thought, and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1. *Qian Yi* wrote *Xiao Er Yao Zheng Zhi Jue*(『小兒藥證直訣』, edited by 閻季忠), and there were *Shang Han Lun Zhi Wei*(『傷寒論指微』), *Ying Ru Lun*(『嬰乳論』), however those are loss of the record.

2. *Qian Yi*'s *Zhi Jue*(『直訣』) was influenced by *Lu Xin Jing*(『顛顛經』), yet if we compare the quality of *Sheng Li, Byeng Li, Bang Jae*(生理、病理、方劑), *Lu Xin Jing* cannot be the foundation of *Zhi Jue*. He took over *Nei Jing, Shang Han Lun, Jin Gui Yao Lue, Shen Long Ben Cao Jing, Tai Ping Sheng Hui Fang*(『內經』、『傷寒論』、『金匱要略』、『神農本草經』、『太平聖惠方』) and put them together to the direct clinical experiences of pediatrics.

3. There is no reference regarding the difficulties of pediatric diagnosis and diseases in *Huang Di Nei Jing*(『黃帝內經』) Before *Bei Song*(北宋), regardless of the lack of data related to pediatric diseases, *Qian Yi* established the pediatric system in *Xiao Er Yao Zheng Zhi Jue* for the first time.

4. In his diagnosis of the pediatric diseases, he *Si Zhen He Can*(四診合參), also considered in the eye exam seriously. In addition, he closely combined *Wu Zang Bian Zheng*(五臟辨證), and diagnosis the pediatric diseases.

5. *Wu Zang Bian Zheng*, what *Qian* established method was based on *Zheng Ti Guan*(整體觀) in *Huang Di Nei Jing*. It was based on clinical experiences

1)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 · 醫史學教室

and established the perspectives of *'Tian Ren Xiang Ying'*(天人相應). First of all, he pinpointed *'Zhu Zheng'*(主證) clearly. Secondly, he pinpointed the relationships to symptoms and then, he distinguished a generic character of *'Xu, Shi, Han, Re'*(虛、實、寒、熱). Finally, he made an induction from genealogical pediatric physiology.

6. *'Qian Yi'* took a serious view of *'Ban Zhen'*(斑疹), the inadequate field in those days. At that time, he criticized on the habituation of the misuse of medication. He treated separately which *'Ji Jing'*(急驚) as *'Liang Xie'*(涼瀉) and *'Man Jing'*(慢驚) as *'Wen Bu'*(溫補). He proposed *'Cong Gan Zhu Feng, Xin Zhu Jing'*(從肝主風, 心主驚) theory and formulated *'Jing Feng'*(驚風) theory as well.

7. As an opponent of a tendency to misuse of medicine, *'Qian Yi'* made out a prescription with pliant medicine. He emphasized on the treatment to *'Gong Bu Shang Zheng, Bu Bu Zhi Xie, Xiao Bu Jian Shi'*(攻不傷正、補不滯邪、消補兼施) because he had so lucid demonstration to *'Xu Shi Han Re'*(虛實寒熱) of the five viscera in the field of *'Bang Yak'*(方藥).

8. There were no pediatrics schools at that time, however, the pediatrics was being made up gradually by *'Jin Yuan Si Da Jia'*(金元四大家) who was influenced by *'Qian Yi'*. He raised an objection to medical treatment using pliant medicine. *'Qian Yi'* applied *'Qu Xia'*(驅下) treatment using *'Han Liang'*(寒涼) medicine. *'Han Liang Pai'*(寒涼派) is greatly influenced by *Qian*. *'Chen Wen Zhong'*(陳文中) had a great impact on *'Han Liang Pai'* who used a *'Zao Shu Wen Bu'*(燥熟溫補) medicine for treatment. Since *'Song Jin'*(宋金), he had a tremendous influence on pediatrics treating patients in both *'Han Wen'*(寒溫) ways.

9. *'Qian Yi'* had an influence on his medical thoughts on future generations, especially to *'Wan Quan'*(萬全) of *'Ming Dai'*, *'Wu Tang'*(吳塘) of *'Qing Dai'*(清代) and *'Yun Shu Jie'*(惲樹珪) of *'Min Guo'*(民國). *'Wan Quan'* is an advocate of *'You Yu, Bu Zu Zhi Shuo'*(有餘、不足之說) of *'Xiao Er Wu Zang'*(小兒五臟) that he revealed *Qian's 'Wu Zang Bian Zheng'*(五臟辨證). *'Wu Tang'* disclosed *Qian's 'Xiao Er Ti Zhi Shuo'*(小兒體質說) and *'Xiao Er Ke'*(小兒科)'s *'Yong Yao Lun'*(用藥論), therefore, he uncovered pediatric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advocate of *Qian's 'Zang Fu Rou Ruo, Ji Gu Nen Qie, Yi Xu Yi Shi, Yi Han Yi Re'*(臟腑柔弱、肌骨嫩怯、易虛易實、易寒易

熱). 'Yun Shu Jie' developed intrinsic relationships among time, symptom and 'Tian Ren Xiang Ying Guan(天人相應觀), What 'Qian Yi' stated about them. And also, he developed Qian's 'Di Huang Wan(地黃丸), 'Xie Qing Wan(瀉青丸), 'Yi Huang San(益黃散) clinical usages as well.

10. Regarding Qian's 'Wu Zang Xu Shi(五臟虛實), it has an influence on 'Zhang Yuan Su(張元素)'s 'Zang Fu Bing Ji Bian Zheng(臟腑病機辨證). 'Di Huang Wan', 'Xie Qing Wan', 'Xie Xin Tang(瀉心湯), 'Yi Huang San', 'Xie Huang San(瀉黃散) are the standard prescription of 'Wu Zang Bu Xie(五臟補瀉). It is under the influence of Qian's treatment. Besides, 'Qian Yi' took a serious view of 'Xiao Er(小兒)'s 'Pi Wei(脾胃). 'Qian Yi' had an impact on 'Li Dong Yuan(李東垣) one of the member of 'Bu Tu Pai(補土派). 'Di Huang Wan', which placed great importance on 'Bu Yi Shen Yin(補益腎陰), had a great impact on 'Da Bu Yin Wan(大補陰丸) and 'Jin Yuan Si Da Jia' as well.

11. In a theory of Qian's 'Wu Zang Bian Zheng', though it had been stated clearly in 'Wu Zang Bian Zheng', but he neglected in 'Liu Fu Bian Zheng(六腑辨證). In prescription field, The problem with the medicine is that it is either toxic or mineral, therefore, we are not able to use those medicine in a clinical testing at the present time.

I. 緒論

동양의학에서 소아과에 대한 역사가 매우 오래 되었고 중요한 의학 분과의 하나가 되어 그 독특한 이론과 치료체계가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기원전 12세기의 甲骨文에 소아 질병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고²⁾ 『尙書』, 『孟子』³⁾ 등에서도 소아를 중시한 말이 나타나며, 『史記·扁鵲傳』에서 편작이 “入咸陽, 聞秦

2) 李經緯 著: 『中國醫學通史』, 人民衛生出版社, 2000, p.81.

: 殷商 甲骨文的 卜辭에 “帚女來子疾, 不井”이라 하였는데, 武丁 女來妃의 아이가 병이 들었으나 죽지는 않았다는 말이고, “貞子疾首”라 하여 武丁의 아이가 頭痛을 앓자 예후를 물은 것이다.

3) 『尙書·康誥』에 “如保赤子, 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 未有學養子後嫁者也”라 하였고 商末의 箕子는 “凶、短、折(夭折)”을 매우 나쁜 일의 하나로 보아 당시에 소아 양육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춘추전국 시기에 도 반영되어 『孟子·梁惠王』에 “幼吾幼, 以及人之幼”라는 말이 있다.

人愛小兒, 卽爲小兒醫”라 하여 최초로 소아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診治한 醫生 즉 “小兒醫”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馬王堆에서 출토된 醫書인 『五十二病方』은 소아과를 기술한 최초의 의서이다⁴⁾. 『黃帝內經』에서는 동양의학의 이론을 비교적 계통적으로 기술하였는데, 여기에서 기초이론과 진단 치료 원칙도 마찬가지로 소아과의 임상에 적용하였다.⁵⁾

東漢末年 張仲景의 제자인 衛訊이 역사적으로 최초로 소아 전문의서인 『小兒顛顛經』을 저작하였고,⁶⁾ 三國南北朝시기에 이르면 晉宋에 소아과 전문의가인 “江左蘇家”가 있었고 또한 北齊에 徐之才가 『小兒方』 三卷을 撰하였으며,⁷⁾ 『隋書·經籍志』와 新·舊『唐書』에는 소아 전문 醫籍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⁸⁾ 그 당시 소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唐代에 이르러 太醫署에 “少小” 즉 소아과를 설치하였는데 7세기 초 의학에서 소아과를 독립된 학과로 분과하여 전문적인 소아과 의생을 최초로 배양하였으며, 이후 宋代에 太醫局과 元、明、清代에 太醫院에서 小方脈科를 설치하여 전문 인재를 배양하였다.

宋代에는 이전의 임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론적인 연구와 발전이 있었다. 唐 중엽 이후부터 經學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학자들은 전통적인 注疏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설로 經學을 해석하였다. 이러한 풍조가 宋代에도 매우 성행하게 된 이유는 唐·宋 시대의 정부와 사회가 文學을 숭상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새로운 사상을 창조하여 낼 수 있었으며 佛家和 道家가 융합되어 새로운 사상체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⁹⁾¹⁰⁾ 그밖에 製紙術 및 印刷術의 발전과 校正醫書局의 설립

4) 『五十二病方』에 기재된 “嬰兒索瘰”은 신생아 破傷風이고, “嬰兒病癩”은 소아의 熱性驚厥이며, “嬰兒瘦”은 소아 慢驚風으로 先秦醫學에서는 각종 소아 경련성 질병에 대하여 이미 비교적 정확하게 감별진단 하였다.

5) 『素問·上古天真論』에서 “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男子八歲, 腎氣實, 髮長齒更……”이라 하여 아동 성장발육의 특징을 묘사하였다. 『靈樞·論疾診尺』에 “嬰兒病, 其頭毛皆逆上者, 必死. 耳間青脈起者, 掣痛. 大便赤澀滲泄, 脈小者, 手足寒, 難已; 滲泄, 脈小, 手足溫, 泄易已”라 하여 여기에 설명한 증상은 대부분 영양실조, 소화불량, 갈증이나 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발한다. 『素問·奇病論』에서 선천성 癩疾을 상세히 논하여 “此得之在母腹中時, 其母有所大驚, 氣上而不下, 精氣并居, 故令子發爲顛疾也”라 하였다.

6) 宋·李昉: 『太平御覽』권722, 中華書局影印本, 1985.

: “張仲景方序曰: 衛訊好醫術, 少師仲景, 有才識, 撰『四逆三部厥經』及『婦人胎藏經』、『小兒顛顛經』三卷, 皆行于世”라 하였고, 明·徐春甫의 『古今醫統』에서도 “衛訊, 仲景弟子, 好醫術, 有才識, 疏撰『四逆三部厥經』、『小兒顛顛經』行世, 名世當時”라 하였다. 오늘날 유전되는 『顛顛經』은 衛氏가 저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7) 이는 『備急千金要方』 권5에 기재되어 있다.

8) 『隋書·經籍志』에 기재된 梁代의 소아과 醫書로는 王末鈔 『小兒用藥本草』 2권, 王末撰 『療小兒雜方』 17권, 徐叔向 『療小兒藥方』 37권, 范氏 『療小兒藥方』 1권, 『雜湯丸散酒煎薄貼膏湯婦人少小方』 29권, 『療少小雜方』 20권, 『療少小雜方』 29권 등이 있고 新·舊『唐書』에는 『少小方』 10권, 『少小雜方』 20권, 俞寶 『少小節療方』 1권, 『俞氏治小兒方』 4권, 姚和衆 『童子秘訣』 3권, 『衆童延齡至寶方』 10권, 孫會 『嬰孺方』 10권 등이 있다.

은 의학지식을 보급함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송대는 소아에 대한 저작이 전례 없이 풍부하여 董汲의 『小兒斑疹備急方論』(1093)、錢乙의 『小兒藥證直訣』(1119)、閻孝忠의 『閻氏小兒方論』(1119)、張渙의 『小兒醫方妙選』(1126)、劉昉의 『幼幼新書』(1150)、無名氏의 『小兒衛生總微論方』(13세기초)、陳文中의 『小兒痘疹方論』(13세기 중엽)、『小兒病源方論』(1254)、楊士瀛의 『嬰兒指要』 등이 있다.¹¹⁾

그 중에서 錢乙은 『內經』、『傷寒論』、『金匱要略』、『神農本草經』、『太平聖惠方』 등의 내용을 계승하고 소아의 생리와 병리의 특징을 파악하여 『小兒藥證直訣』(이하 『直訣』로 간칭)을 편찬하여 후세 小兒科學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의 五臟辨證理論과 方藥은 후대의 易水學派、滋陰學派、溫病學派의 이론정립과 임상응용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아임상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다.

이에 論者는 宋代 대표적인 醫家 가운데 한 사람인 錢乙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하여 『직결』¹²⁾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宋代의 醫學思想과 錢乙의 生涯 및 著作

1) 宋代의 醫學思想과 潮流

당시 北宋 사회는 안정된 시기로서 봉건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단계였다. 이 시기에 발명된 火藥과 指南針과 活字·印刷術은 宋代 중요한 三大發明으로써, 指南針의 발명은 항해술에 큰 영향을 미쳐 국가간의 문화와 의학적인 교류를 촉진시켰고, 활자·인쇄술의 발명은 문화적 발전과 과학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는 醫學發展의 擴大와 提高에 유리한 조성으로 송대 과학 기술의 발전은 醫藥學術의 성취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¹³⁾

9) 傅樂成 篇：『中國通史』下，서울，宇鍾社，1982，pp.691~692.

10) 洪元植 編：『中國醫學史』，서울，東洋醫學研究院，1984，pp.137~139.

11) 馬繼興 著：『中醫文獻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90，pp.230~233.

12) 宋·錢乙 著，閻孝忠 編輯：『小兒藥證直訣』，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1

13) 上揭書：p.4.

宋·王朝는 中央執權政治를 강화하고 文官을 起用하고 文士의 양성과 선발을 중시하였는바 많은 文士를 길러내는 결과를 낳아 문화 과학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 중 일부 文士가 의학에 참여하여 의학의 문화적 수준을 높였는데, 당시 유명한 정치가이자 문학자인 蘇軾(1036~1101年)과 沈括(1031~1095年)의 『蘇沈良方』을 보면 송대 의학이 지식층에 많이 보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不爲良相, 當爲良醫’의 風土에 따른 것으로 ‘儒醫’란 명칭은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⁴⁾ 즉 의학계층의 구조적 변화는 醫藥理論의 발전과 임상적인 경험을 제고하는 중요한 촉진 작용이었다.

醫學에 있어서도 『상한론』 이후 약 700~800년을 거처오면서 여러 가지 實踐知識 즉 질병의 발생 규율, 치료, 처방, 용약 등에 관한 법칙에 관하여 많은 경험이 축적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當時의 思潮의 영향아래 의학계에서는 유명한 革新家들이 나타나 새로운 學家와 견해가 창립되었다.¹⁵⁾ 宋朝는 醫事管理를 改進하고 ‘翰林醫官院’을 설립하였고, 국가에서 藥局을 개설하고 의료 교육을 발전시켰고, 고대 의학을 정리, 연구하여 大量의 方書인 『太平聖惠方』, 『太平惠民和劑局方』, 『經濟總錄』을 編著하였다.¹⁶⁾¹⁷⁾

北宋時期에는 鄉藥이 대량 수입되어 原來의 經方이 改變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盛行한 『和劑局方』은 太醫局 소속 약국의 成藥 處方 配本이며 方劑의 내용은 대부분 辛香溫燥한 약물로 구성되고 있다. 『直訣』에서 지적한 바 당시 醫家들이 “所用多犀, 珠, 龍, 麝”¹⁸⁾ 라 하였으니 이는 『화제국방』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在治總錄』은 200권에 20000 여 개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지만 하나의 처방에 인용한 처방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처방 가운데 藥味가 廣雜하고, 同一한 方名인데도 약물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았다. 여기서는 病源에 관한 논술은 거의 없고 증후에 관하여 조금의 논술만 붙였을 뿐 辨證論治의 특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多方, 多藥, 成方의 濫用 상황 아래 이론의 系統化와 治法의 簡略化는 필연적이었는데, 錢씨는 理, 法, 方, 藥의 구비와 임상적인 실천을 통하여 辛香溫燥한 약물과 반대되는 柔潤의 처방을 응용하여 학술적인 一家를 형성하였다.¹⁹⁾

2) 錢乙의 生涯 및 著作

14) 甄志亞 著: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1992, pp.186~187.

15) 前掲書: 『中國醫學史』 洪元植, p.140.

16) 上掲書: pp.140~142.

17) 前掲書: 『中國醫學史』 甄志亞, p.188.

18) 前掲書: 『小兒藥證直訣』 「原序篇」, p.7.

19) 前掲書: 『兒科宗師錢仲陽』, pp.5~6.

錢乙의 字는 仲陽으로 宋·明道元年(1032年)에 태어나서 正和 三年(1113年)卒하여 81歲를 살았다. 祖上은 漣(지금의 浙江 杭州)人으로 吳越王의 宗屬이는데 祖父때 北으로 옮겨 東平의 鄆州人(지금의 山東 鄆城東平)이 되었다. 부친의 이름은 顯이며 鍼灸醫로 명성이 높았지만 평소에 술과 노는 것을 좋아하여, 후에 이름을 숨기고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錢乙의 나이는 2세로 모친 또한 일찍 사망하였는데, 姑母가 불쌍히 여겨 錢乙을 養子로 거두었다. 성장하면서 姑父인 呂君에게서 의학을 배웠는데, 呂씨의 사망에 이르러 家業을 물려받았다.

30여세에 소아과 전문의로 山東에 명성을 날렸고, 50여세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 元豐中(1068~1085年)에 神宗黃帝 長公主의 질병을 치료하여 翰林學士로 제수 되었으며, 그 다음해 皇子 儀國公이 ‘瘦癢’(抽風)을 앓아 宮中 御醫들이 치료하지 못한 바 錢씨가 黃土湯으로 낫게 하여 太醫丞으로 발탁되어 皇室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그 명성이 자자하였다. 哲宗 皇帝時(1085~1100年)에 다시 朝廷의 부름을 받고 入官하였으나 병환으로 말미암아 1093년에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錢씨는 40년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총괄하여 1113년에 『小兒藥證直訣』을 편찬하였다.²⁰⁾

錢씨는 『小兒藥證直訣』 8卷 이외에 『傷寒論指微』 5卷과 『嬰幼論』 百篇 등을 著作을 하였지만 『상한론지미』와 『영유론』은 早期에 失傳되고 오직 『직결』만이 閻孝忠의 편집을 거쳐 후세에 전하여지고 있다.²¹⁾

閻씨²²⁾는 宋·大梁(지금의 河南 開封)人으로 관직은 宣敎郎에 이르렀었다. 閻씨의 先祖가 眞宗 治平年間(1064~1067年)에 山東地域에 任職時에 錢씨를 알게되었는데 당시 閻씨는 4~5세로 평소에 병이 많았고 錢씨의 치료를 받고 낫게 되었다.

閻씨가 성장한 후에 그는 錢씨의 학문을 연구하고 錢씨의 方書와 著述을 수집하였다. 당시에는 자료가 부족하여 10 여 개의 方藥에 불과했지만 宋·徽宗 大觀年間(1107~1110年)에 閻孝忠이 入官하면서 여러 곳에 흩어진 錢씨의 醫論、醫案、醫方 및 各種 抄本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論證 數十條와 雜方을 모았는데, 이것은 錢씨가 晩年에 지은 것으로서 일찍이 京城開封에서 모은 것보다 뛰어나다.

閻씨는 수집한 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참고함으로써 중복을 피하고 차례를 정리하고, 錯誤 및 方言을 바로잡아 上, 中, 下 三卷으로 編成하였다. 上卷은 脈證治法과 小兒脈法, 五臟病, 急慢驚風, 疱疹, 傷風, 吐瀉, 咳嗽, 疳, 積, 蟲癖, 腫, 雜證의 八十一篇이 記載되어있고, 中卷은 治病案이며, 下卷은 諸方으로 기재되어 宋·宣和 元年인 1119年

20) 前掲書：『小兒藥證直訣』「錢仲陽傳」, pp.1~5.

21) 前掲書：『兒科宗師錢仲陽』, p.2.

22) 簫源 외 5人 編輯：『永樂大典』卷九七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42.

“閻孝忠 『附方』論, 小兒急慢驚, 世書無之……”라 하여 閻季忠을 閻孝忠으로 表記하였다.

에 만들어졌다. 책 뒤편에는 閻孝忠의 『小兒方論』과 董汲의 『小兒癩疹備急方論』各 1卷과 劉跂가撰한 『錢仲陽傳』이 첨부되었다.²³⁾²⁴⁾²⁵⁾ 이것은 小兒疾病 辨證論治의 전문서로서 현존하는 것으로 비교적 드물게 원본 형식으로 내려오는 소아과에 관한 저작이다.

閻씨 또한 官僚로서 문화적인 수양이 비교적 높은 上層人으로서 의학에 관련된 자신의 견해가 많이 반영되었으니, 이를 통하여 錢씨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직결』一書의 歷代 注本으로서 明代 熊宗立의 『類澄注釋 全氏小兒方訣』과 薛己의 『類澄注釋全氏小兒方訣』과 民國時 張翼의 『小兒藥證直訣註』와 張山雷의 『小兒藥證直訣箋正』 등이 있다. 그밖에 『閻氏小兒方論』, 『幼幼新書』, 『醫方類聚』, 『宋史·錢乙傳』 등에 錢씨의 佚文, 佚方, 佚案이 散在되어 있으니 錢씨 學說 研究에 귀중한 자료이다. 현존하는 판본으로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²⁶⁾²⁷⁾

- ① 明嘉靖間刻本.
- ② 明宗禎元年戊辰(1628年)眞定梁維本.
- ③ 日安慶元年(1684年)刻本.
- ④ 清康熙間起秀堂照本任影刻.
- ⑤ 殿刻本(武英殿聚珍版斷總書).
- ⑥ 清乾隆四十五年庚子(1780年)三原李氏校刻『惜陰軒總書』本.

2. 錢乙의 學術思想과 臨床經驗

宋代 이전 소아과 분야에 있어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隋代 巢元方이 저술한 『諸病源候論』에 열거된 『小兒雜病諸候』에 計 3卷 255候안에 소아의 護養 및 소아과 질병의 病源 및 症候의 진행에 관하여 깊이 검토된 바가 있고, 唐代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에 기재된 바 婦孺를 卷首로 하였으며 “若無于小, 卒不成大”²⁸⁾라 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先婦人小兒, 後丈夫嘗老”²⁹⁾라 하였으니 사회적으로 婦女와 兒童을 중시했음을

23) 賈維誠 編輯: 『三百種醫籍錄』, 黑龍江省新華書店, 1982, p.306.

24) 前掲書: 『兒科宗師錢仲陽』, p.2.

25) 前掲書: 『小兒藥證直訣』 『四庫全書目錄提要』中, 서울. 癸丑文化社, 1974, 上卷.

26) 前掲書: 『三百種醫籍錄』, p.309.

27) 前掲書: 『兒科宗師錢仲陽』, p.3.

28) 孫思邈 著·李景榮 외5人 編輯: 『備急千金要方校釋』 『少小嬰幼方』, 人民衛生出版社, 1998, p.85.

29) 上掲書: 『少小嬰幼方』, p.85.

알 수 있다. 또한 王燾의 『外臺要秘』에 ‘小兒諸疾’에 관하여 86門의 例³⁰⁾를 두었으니 錢씨의 小兒科學에 관하여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直訣』의 내용상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1) 『小兒藥證直訣』의 歷史的 淵源

(1) 『顛顛經』과의 比較

『宋史·方技傳』에 이르기를 “錢乙始以顛腦經著名”라 했는데 紀昀(1724~1805年)이 『四庫提要』에서 비교하기를 “師巫顛腦經……錢乙幼科, 冠絕一代, 而其源實出於此書, 亦可知其術之精矣.”³¹⁾라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많은 醫家들이 “蓋乙之著名幼科, 其源實出于顛腦經”³²⁾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신경』을 살펴보면 隋代 顯中(605~618年)과 太醫인 巢元方이 저작한 『제병원후론』에서 이르기를 “中古有巫方, 立小兒免顛腦經, 以占夭壽, 判疾病死生, 世所相傳, 有小兒方言.”³³⁾라 하여 즉 옛날에 巫方이 있어 小兒顛腦經을 만든 바 小兒治病의 祖라 하였는데, 다만 지금에 전하는 『노신경』은 『永樂大典』중에서 輯出된 것으로 편찬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傳本이 없고³⁴⁾ 『제병원후론』에 열거한 증후와는 다르다.

『千金方』, 『外台秘要』, 『醫心方』, 『太平聖惠方』에 各家의 醫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까지 전하는 『노신경』의 처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歷代의 史志를 살펴보면 『唐·藝文志』에 그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宋·藝文志』에는 『師巫顛腦經』2卷의 기재가 나타나므로 이로 말미암아 미루어 보면 唐末에서 宋初人이 師巫씨를 假托하여 저작한 것으로 생각된다.³⁵⁾

현존하는 『노신경』과 『직결』을 서로 참조하면 내용이 일맥상통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노신경』에 있는 “凡孩子, 三歲以下, 呼爲純陽……”³⁶⁾의 說에 관하여 『직결』

30) 王燾 著: 『外臺要秘』《文淵閣四庫全書》卷五, 서울, 驪江出版社, 1988.

: 卷三十五에 小兒諸疾 上 三十六門과 卷三十六에 小兒諸疾 下 五十門을 실었다.

31) 李茂如 외2人 編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滙考』,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559~560.

32) 上揭書: p.559.

33) 巢元方 著: 『巢氏諸病源候論』卷四十五『小兒雜病諸症』《文淵閣四庫全書》卷二,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868.

34) 前揭書: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滙考』, pp.559~560.

35) 前揭書: 『兒科宗師錢仲陽』, p.6.

36) 佚名 著: 『顛腦經』《文淵閣四庫全書》卷六,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738*3

: “凡孩子三歲以下呼爲純陽元氣未散若有脈候即須於下一寸取之不得同大人分寸其脈候未來呼之脈來三至吸之脈來三至呼吸定息一至此爲無患矣”

가운데는 ‘純陽’이란 말은 나타나 있지 않고, 『四庫提要』에서 “乙以爲小兒純陽, 無煩益火”³⁷⁾라 하였다.

錢씨의 소아 생리와 병리에 관한 인식은 음양학설로 크게 구분되고 지금에 전하는 『노신경』은 道家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소아의 ‘純陽’과 ‘元氣未散’의 학설과는 구별된다.

특히 錢씨가 주장한 五臟 虛實寒熱의 證治는 『노신경』에는 없는 부분이다. 소아에 관하여 논술한 바 『諸病源候論』, 『千金方』, 『外台秘要』, 『醫心方』에는 내용이 대략 비슷하지만 『노신경』에는 같지 않다.³⁸⁾

方劑 분야에 있어 지금 전하는 『노신경』에는 小兒驚病을 주치하는 약물로 ‘虎睛丸’、‘又虎睛丸’、‘二十二味虎睛丸’、‘保童丸’의 4종류가 있으나,³⁹⁾ 『직결』에서는 ‘虎睛丸’을 사용하지 않았다.

『노신경』과 『직결』에서 언급된 같은 이름의 方劑는 ‘牛黃丸’、‘調中丸’、‘胡黃連丸’이 있지만 처방의 구성과 주치 작용은 다르다. 예를 들면 『노신경』 가운데 ‘우황환’은 小兒胎驚과 疔、心熱을 치료하고 牛黃、龍腦、馬牙硝、鐵焰粉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직결』의 ‘우황환’은 小兒의 疔積을 다스리며 雄黃、天竹黃、牽牛末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노신경』 가운데 ‘調中丸’은 孩子諸疔、熱攻衝心、肺氣急、晝夜有汗、日漸羸瘦、不知乳食을 치료하는 약물로 柴胡、茯苓、人蔘、木香、桂心、大黃、枳殼、龜甲、甘草를 사용하였지만 『직결』의 ‘調中丸’은 『상한론』의 ‘理中丸’에 甘草의 용량을 半減한 것이다.

소아 질병에 관한 논술을 살펴보면 『노신경』에서 ‘火毒’(丹毒)에 관한 논술은 비교적 상세하여 15候⁴⁰⁾ 例로 들었고 鶴子白를 많이 사용하고 生油潤藥을 外塗하였지만, 錢씨는 ‘火毒’를 ‘丹瘤’⁴¹⁾라 지칭하였고 이에 관한 논술은 간략하게 서술하였고 白土(又云 滑石)、寒水石을 沫하여 米醋로 調塗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지금에 전하는 『노신경』은 『직결』의 근본적인 뿌리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宋史·藝文志』의 「錢乙傳」에서 말한 바 “錢乙始而顛腦方著山東”의 문장 가운데 ‘顛腦方’은 ‘小兒方’을 가리키고 『太平御覽』과 『史記·扁鵲傳』에서 지칭한 바 ‘顛腦醫’는 ‘小兒醫’와 같은 뜻으로,⁴²⁾ 錢씨 당시에 『노신경』이 傳世되었고 또한 당연히 別本임을

37) 前掲書：『兒科宗師錢仲陽』, p.6.

38) 上掲書：p.6.

39) 前掲書：『顛腦經』, pp.738*5~738*6.

：虎睛丸, 又虎睛丸, 二十二味虎睛丸은 驚癇癩症을 治療하며, 保童丸은 疔癩症을 治療한다고 하였다.

40) 上掲書：「火丹證治」, pp.738*10~738*12.

41) 前掲書：『小兒藥證直訣』, p.47

： “丹瘤, 熱毒氣客于腠理, 搏于血氣, 發于外皮, 上赤如丹, 當以白玉散塗”

알 수 있다. 『직결』에 나타난 錢씨의 학술적인 사상과 견해는 『內經』, 『傷寒論』, 『金匱要略』, 『神農本草經』, 『太平聖惠方』 등의 내용을 계승하여 40여년 동안 축적된 소아과의 임상경험을 총괄하여 저작하였다.

(2) 『黃帝內經』에서 影響 받은 分野

『직결』의 오장 오행의 생리 이론이 『내경』과 일맥 상통한다. 臟腑病에 관련된 寒熱 補瀉와 諸方遺藥이 모두 『내경』과 상통한다. 예를 들면 錢씨는 소아 面部 望診에서 “左腮爲肝, 右腮爲肺. 額上爲心, 鼻爲鼻, 頰爲腎, 赤者熱也, 隨證治之”⁴³⁾라 함은 『素問·刺熱篇』의 “肝熱者病 左頰先赤, 心熱病者 顏先赤, 脾熱病者 鼻先赤, 肺熱病者 頰先赤, 腎熱病者 頰先赤, 病雖未發 見赤色者, 刺之”⁴⁴⁾에서 근원함을 알 수 있다.

(3) 『傷寒論』에서 影響 받은 分野

錢씨는 張仲景의 『상한론』을 상당히 연구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는 『상한론지미』를 저술하였지만 傳世되지는 않고 있다. 『직결』에서 기재된 처방 가운데 張仲景의 영향을 받아 사용한 약물은 상당히 많다. 이를테면 소아의 胃寒瀉白, 腹痛腸鳴, 吐酸水, 不思飲食의 증상에 사용하는 ‘調中丸’이나 ‘溫中丸’은 『상한론』의 ‘理中丸’과 약물 구성이 동일하다. 다만 薑과 甘草의 용량과 용법이 다른데, ‘조중환’에서는 감초의 용량이 반감되었고 ‘온중환’은 薑汁을 사용하고 乾汁을 사용하지 않았다. 小兒의 肺熱로 인한 手搯眉目鼻面赤을 치료하는 ‘甘桔湯’은 『상한론』의 ‘桔梗湯’과 약물 구성이 서로 같다. 단 劑量이 다른데 ‘길경탕’의 길경은 1兩, 감초는 2兩으로 少陰病의 咽痛이 不瘥한 경우로 말미암아 ‘肺痿’에 이르며 肺痛咳吐癩血者를 치료하고, ‘감길탕’에는 길경 2兩과 감초 1兩으로서 肺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길경탕’에서는 瀉熱解毒과 利咽止痛에 중점을 두었고, ‘감길탕’에서는 開泄肺氣과 以散其熱에 치법의 중점을 두었다. 또한 ‘藿香散’(藿香葉, 麥門冬, 半夏曲, 灸甘草, 一方有生石膏)을 예를 들면 ‘麥門冬湯’(麥門冬, 人蔘, 半夏, 甘草, 粳米, 大棗)과 연계되는데 胃虛有熱의 증상을 치료한다. 특히 그가 創製한 ‘地黃丸’⁴⁵⁾은 『金匱要略』의 ‘腎氣丸’⁴⁶⁾에서 肉桂와 附子를 去하고 처방이 구성되

42) 司馬遷 撰: 『史記』《四部備要》卷一百五, 中華書局據武英殿本校刊. 1985.

43) 前掲書: 『小兒藥證直訣』「腎虛」, p.8.

4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p.66.

45) 前掲書: 『小兒藥證直訣』, pp.47~48.

: “地黃圓 治腎怯失音, 腦開不合, 神不足. 目中睛多, 面色晄白等方 熟地黃八錢, 山茱萸, 乾山藥 各 四錢, 澤瀉, 牡丹皮, 白茯苓去皮 外 三錢”

어 小兒의 胎怯、解顛、行遲、語遲 등을 치료하니 仲景의 治法을 운용하여 소아과에 典範을 열게 되었다.

(4) 『太平聖惠方』에 影響받은 分野

이 밖에도 『太平聖惠方』은 錢씨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태평성혜방』은 A.D. 992년에 저작되었는데 『직결』에 비하여 120년이나 빠르다. 이것은 北宋의 ‘翰林醫官院’이 民間의 效方 및 各種 方書의 기초 위에 王杯隱 등이 編寫하여 만들었다. 그 가운데 소아과의 방제를 편집하였고, 또한 ‘急驚風’이나 ‘慢驚風’이란 病名이 있다. 두 책은 劑方에 관하여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 예를 들면 『직결』과 『태평성혜방』 가운데 ‘治小兒氣疳, 吃水不止’의 ‘龍膽丸’⁴⁷⁾은 藥味가 서로 같고 소아의 疳瘕腹大를 다스리는 ‘木香丸’은 『태평성혜방』 가운데 ‘治小兒氣疳, 腹脹煩熱, 大便難’의 ‘檳榔丸’⁴⁸⁾보다 ‘豆久’一味가 많다. 기타 大同小異한 방제는 적지 않은데 『태평성혜방』 가운데 ‘顛腦方’은 그의 학술적 연원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2) 醫學思想에 關한 研究

(1) 小兒病 特徵을 分析

錢씨는 『黃帝內經』의 整體觀에 기초하고 직접적인 임상 경험을 통하여 소아의 질환이 성인의 질환과 다르지 않고 오직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 작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소아가 성인의 축소된 그림자가 아니라 어떠한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小兒期는 성장과 발육의 과정 중에 있으며 陰陽의 對立과 統一, 消長과 轉化는 모두 성인과 다른 바가 있는데 성장할수록 차이가 적어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소아과가 독립된 하나의 분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하나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錢씨는 『靈樞·逆順肥瘦篇』의 “嬰兒者, 其肉脆, 少氣弱”⁴⁹⁾과 『諸病源候論』에서 “小兒臟腑之氣強弱, 易虛易實”⁵⁰⁾ 등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계통적으로 논술하였

46) 蔡仁植 譯：『金匱要略精解』，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1986. p.193.

：乾地黃八兩，薯蕷四兩，山茱萸四兩，澤瀉三兩，牡丹皮三兩，桂枝，附子 炮各一兩

47) 『太平聖惠方』卷四，平常心出版社. p.2796.

： “龍膽丸治小兒疳渴不之……”

48) 上掲書：『太平聖惠方』，p.2766.

： “檳榔丸治小兒急疳諸方……”

49) 洪元植 編纂：『精校黃帝內經靈樞』，東洋醫學研究院，서울，p.275.

다.

① 小兒의 生理的 特徵

錢씨는 소아의 생리를 인식하여 胎兒의 發育狀況을 착안하였다. 그는 『직결』에서 “小兒在母腹中, 內生骨氣, 五臟六腑成而未全……全而未壯”⁵¹⁾이라 하였고, 출생 후에는 지속적인 발육하는데 이를 “長骨脈”⁵²⁾과 “長生臟腑智意”⁵³⁾로 설명하였다. 古人들은 ‘變蒸’을 일러서 嬰兒가 발육 과정 중에 나타나는 주기적인 생리적인 변화이라 하였다. ‘變蒸’ 이후에 치아가 나고喜怒를 알게 되어 마땅히 臟腑가 ‘始全’하게 되지만 여전히 ‘全而未壯’⁵⁴⁾이라 하였다. 이 때문에 ‘臟腑柔弱’⁵⁵⁾、‘血氣未實’⁵⁶⁾이라 하였으니 비로 소아 생리의 중요한 특징이다.

錢씨는 『直訣·五臟所主』에서 “腎主虛, 無實也”⁵⁷⁾라는 관점을 제기하여 또 다른 소아 생리의 관점을 개괄하였다. 대개 腎은 先天의 根本이며 소아는 부모로부터 稟賦받았음을 『靈樞·天年』에서 “以母爲基, 以父爲楫”⁵⁸⁾이라 하였다. 그러나 출생 후에는 또 後天 水穀의 滋養에 의지함이니 『素問·上古天真論』의 腎은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⁵⁹⁾라 함과 상통한다. 이런 이유로 錢씨는 소아가 稟賦不足하므로 臟腑柔弱하기에 마땅히 後天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장과 발육이 차츰 나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도 “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丈夫八歲, 腎氣實, 髮長齒更……”⁶⁰⁾이라 하여, 小兒는 腎氣未充하여 陰陽和合을 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직결』은 『내경』의 관련된 이론을 근본으로 삼아 “腎主虛⁶¹⁾”의 학설을 확립하였다. 이를 두고 張山雷는 『小兒藥證直訣牋正』에서 “腎主先天之眞陰, 其長成極遲. 稚齡无欲念……故兒科无腎實之病”⁶²⁾라 지적하였다.

50) 巢元方 著: 『巢氏諸病源候論』 「小兒雜病候」 《文淵閣四庫全書》卷二, 서울, 麗江出版社, 1988. p.734*869.

51) 前掲書: 『小兒藥證直訣』 「變蒸」, pp.1~2.

52) 上掲書: 『變蒸』, p.2.

53) 上掲書: 『變蒸』, p.2.

54) 上掲書: 『變蒸』, p.2.

55) 上掲書: 『原序』, p.7.

56) 上掲書: 『原序』, p.7.

57) 上掲書: 『五臟所主』, p.4.

58) 前掲書: 『黃帝內經靈樞』, p.301.

59) 前掲書: 『黃帝內經素問』, p.11.

60) 上掲書: pp.11.

61) 前掲書: 『小兒藥證直訣』 「五臟所主」, p.4.

62) 張山雷 著·浙江省中醫管理局 編校: 『小兒藥證直訣牋正』 「五臟所主」 《張山雷醫集》 下,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34.

② 小兒의 病理的 特徵

錢씨는 『내경』의 “嬰兒者, 肌肉脆, 血少氣弱”⁶³⁾의 要旨을 으뜸으로 삼아 소아의 장부가 柔弱함을 인식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는 正氣가 쉽게 損傷을 입고 邪氣 또한 쉽게 侵入하며 일단 질병으로 罹患되면 病勢는 “易虛易實, 易寒易熱”⁶⁴⁾의 병리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소아 질환을 자세히 관찰하면,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實證과 熱症이 많고 또 쉽게 陽熱이 亢盛하고 津液이 損傷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錢씨는 寒涼하고 淸熱한 藥과 酸甘한 藥으로 化陰함을 중시하였고, 또한 오장에 따른 熱證을 상세히 밝혀 寒證을 쉽게 다스렸다. 이는 후세에 소아는 ‘陽常有餘, 陰常不足’학설의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하였다.

③ 生理·病理的 特徵에 따른 治則

錢씨는 소아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寒熱虛實’을 분별하여 ‘妄攻峻補’과 ‘損陽竭津’에 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면 疳病에 있어, 이 질환은 誤下가 太過한 까닭으로 “小兒易虛易實, 下之既過, 胃中津液耗損, 漸令疳瘦”⁶⁵⁾라 하여 “小兒之臟腑柔弱, 不可痛擊, 大下必亡津液而成疳”⁶⁶⁾이라 하였다. 만약 下法이 필수 불가결할 때는 ‘반드시 허실을 살피 下法을 시행하여야 疳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虛實腹脹의 치료에 있어서도 ‘過熱助火, 過寒損陽, 中病則止, 不可過劑’의 원칙을 따랐기에 『直訣·虛實腹脹』에서 “小兒易爲虛實, 脾虛不受寒溫, 服寒則生冷, 服溫則生熱, 當食此勿誤也”⁶⁷⁾라 하여 항상 소아 장부의 허실한열에 주의를 기울였다.

(2) 驚風學說의 確立

宋代 이전에는 兒科를 啞科로 불렀는데 『景岳全書』에 이르기를 “寧治十男子, 莫治一婦人 寧治十婦人, 莫治一小兒”⁶⁸⁾라 하여 소아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다.

閻孝忠은 소아를 치료하는 데 ‘五難’을 들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6세 이하의 『황제내경』에 이에 관한 전문적인 학설이 없어 근거할 만한 경전이 없음이요, 둘째 소아의 脈은 微하여 믿기가 어렵고 진찰 시에 또한 驚啼哭鬧가

63) 前掲書：『精校黃帝內經靈樞』, p.275.

64) 前掲書：『小兒藥證直訣』「原序」, p.7.

65) 上掲書：『諸疳』, p.26.

66) 上掲書：『諸疳』, p.25.

67) 上掲書：『虛實腹脹』, p.30.

68) 張介賓 著：『景岳全書』下卷「小兒則總論」,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696.

많고 氣息脈象에 영향을 미쳐 깊이 살펴 관정하기가 어려움이요, 셋째 소아의 骨氣는 未成하고 形成은 未正, 悲啼喜笑, 變態無常하여 望診에 의거하여 病情을 풀기가 어려움이요, 넷째 소아는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하여도 신빙성이 부족하여 물어서 病情을 풀기가 어려움이요, 다섯째 소아의 장부는 柔弱하고 易虛易實하거나 易寒易熱하여 약물을 사용하기가 온당치 않고 질병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쉽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錢씨는 “脈難以消息求, 證不可以言語取, 襁褓之嬰, 孩提之童尤甚焉.”⁶⁹⁾이라 하여 소아 질병을 다스림에 있어 어려움을 피력하였다.

더구나 北宋 이전에는 소아에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았고, 겨우 『史記』에 기재된 ‘扁鵲이 小兒醫를 거쳤다’는 기록과 孫思邈의 『千金方』과 王燾의 『外臺秘要』에서 ‘小兒病에 流轉했다’는 것, 師巫를 假托한 『顛顛經』이 있었을 뿐이다. 당시 소아 질환에 관한 인식을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였는데, 그 때 까지 연구되지 않은 소아병의 하나로 ‘斑疹’을 들 수 있다. 당시 ‘斑疹’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恬不爲慮”라 하여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錢씨는 ‘斑疹’의 危惡을 중시하고 “與驚搐, 傷寒二同, 而用藥甚異”⁷⁰⁾라 하여 연구에 매진하였다. 특히 ‘慢驚風’에 관하여 당시 의학계는 ‘急驚’과 ‘慢驚’을 구별하지 않고 ‘급경’을 치료하는 약물로 ‘慢驚’을 치료하였지만 錢씨는 “急慢驚風, 陰陽異證, 切宜辨而治之”⁷¹⁾라 하여 ‘급경’과 ‘만경’을 분별하여 치료해야 한다고 하여 ‘급경’은 涼瀉하고 ‘만경’은 溫補하라고 주장하였다.⁷²⁾

北宋 이전에는 驚風을 癇證門에 귀속시켜 ‘驚風’이라 合稱하였고, 『태평성혜방』에서는 驚風을 ‘급경’과 ‘만경’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錢씨는 ‘心主驚’과 ‘肝主風’의 이론에 따라 ‘급경’은 ‘熱甚生風’로 ‘만경’은 ‘脾虛肝木勝之’로 유래한다고 생각하여 二證 모두 抽搐을 일으킨다고 주장하였으니 이후의 醫家들은 모두 그의 이론에 따랐다.

發搐은 모두 肝經의 병증으로 肝經自病과 기타 장부로 유발된 肝病이 있다고 하였으며, 肝病은 마땅히 補腎治肝하고, 心病은 補肝治心, 肺病은 補脾治肝心, 腎病은 補脾治心以寧肝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補肝腎에는 ‘地黃丸’, 補脾에는 ‘益黃散’, 治肝에는 ‘瀉靑丸’, 治心에는 ‘導赤散’과 ‘涼驚丸’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급경’의 病機는 크게는 陽盛陰虛함이요 작게는 驚風痰熱이다. 小兒 急驚은 본래 熱生于心하여 身熱面赤引飲、口中氣熱、大小便黃赤이 나타나 극렬하면 搐한다고 하였다. 대개 熱한즉 風生하니 風은 肝에 속하는데 이것은 陽盛陰虛로서 ‘利驚丸’를 사용하여 그 疾熱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小兒熱疾이 心胃에 客하므로 聞聲非常

69) 前掲書：『小兒藥證直訣』「原序」篇, p.4.

70) 上掲書：『小兒斑疹備急方論』, pp.105~107.

71) 上掲書：『慢驚』, p.13.

72) 上掲書：『小兒斑疹備急方論』, pp.105~107.

한 즉 動하여 驚搐한다고 하였다. 만약 熱極하면 비록 不聞聲及驚하더라도 역시 發搐한다고 하여 驚、風、痰、熱은 ‘급경’에 이르게 하는 4가지 요인으로 각자가 질병을 일으키거나 서로 연관하여 ‘급경’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만경’은 대다수 各種 重病과 久病의 후에 續發하거나 혹은 寒涼攻伐吐瀉한 약물을 과다히 복용함으로써 脾胃를 손상시키고 脾虛肝風乘之하여 泄瀉驚厥을 일으키므로 ‘脾風’이라 이름하였다. 이에 관하여 錢씨는 脾虛生風으로 인한 일종의 虛寒性 脾胃病이라 하였다.

脈證治法에 관하여 살펴보면 錢씨는 ‘급경’을 치료함에 있어 傷風發搐함에는 ‘大靑膏’을, 除痰熱함에는 ‘利驚丸’을, 瀉肝火함에는 ‘瀉靑丸’을 사용하였다. ‘만경’을 치료함에 있어 ‘枯蕒湯’으로 宣風散하고 ‘溫白丸’으로 解毒割痰祛風하여 標를 다스리고 ‘益黃散’으로 本을 다스렸다.

急慢驚風은 兩種의 不同한 病症으로 治法에도 區別함에 있어 錢씨는 이를 가리켜 “凡急慢驚陰陽異證, 切宜辨而治之. 急驚合涼瀉, 慢驚合溫補. 世間俗方多不分別, 誤小兒甚多”라 하였다.⁷³⁾

당시 驚風을 치료함에 있어 대부분 ‘급경’의 치료를 운용함으로써 金石重墮와 重竄走泄之味인 水銀, 輕粉, 辰砂, 冰片, 麝香, 牛黃 등으로 鎮驚平肝의 目的에 사용하였지만 일정한 독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를 두고 『閻氏小兒方論』에서는 “治小兒驚風痰熱堅辨, 能不用水銀, 輕粉甚便. 如不得已用之, 僅去疾即止, 蓋腸胃易傷, 亦損口齒.”⁷⁴⁾라 하였고 『小兒病源方論』에서는 “輕粉味辛涼性冷, 下痰損心氣, 朱砂味甘性寒, 下涎損神氣. 二味相合, 雖下痰涎, 其性寒冷, 損心損神, 亦不可獨用也. 若兒臟受壯實, 服之軟弱也. 若兒胎受怯弱, 服之易傷也. 新生嬰兒下胎毒墮痰涎多致損害, 皆是輕, 朱二味之所候也.”⁷⁵⁾라 하여 金石之品은 비록 神智를 安靜시키는데는 탁월하지만 인체에 發呆하게 영향을 미쳤고, 冰麝香燥는 走竄하지만 心液을 最耗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從肝主風, 心主驚’의 학설이 성립되었고 ‘驚風’에 관한 학설이 창립되었다. 『직결』에서는 經典을 구체적으로 인용한 곳은 없지만 모두 임상적인 실천을 통하여 錢씨가 心得한 부분을 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四診合參에 있어 望診을 重視

73) 上揭書 : p.10, p.46, p.52.

74) 上揭書 : 『閻氏小兒方論』, p.108.

75) 前揭書 : 『兒科宗師錢仲陽』, pp.27~28.

『直訣·序文』에서 “小兒多未能言，言亦未足取信”⁷⁶⁾，“脈難以消息，求證不可以言語取”⁷⁷⁾이라 한 점으로 보아 錢씨는 소아의 진단의 어려움을 논하여 四診을 合參할 것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望診을 더욱 중시하였다. 그는 內臟에 일어나는 질병은 각기 주관하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를 지닌 體表의 有關한 부위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望診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내부를 관찰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본질을 분석하여 소아 질병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여겼다.

즉 그는 脈診方面에 있어 소아과의 질병을 6종류의 常見한 脈象을 언급하였다. 즉 脈亂은 不治요, 弦急은 氣不和요, 沈緩은 傷食이요, 促急은 虛驚이요, 浮는 風이요, 沈細는 冷으로 귀납하였고 面色 및 眼、口、舌、脣 등의 外竅와 形體動作, 汗과 吐瀉物 등을 관찰하는 望診을 중요시하였다.

예를 들면 ‘面晄白’의 증상 하나만으로 볼 때 “面晄白，無精光，口中氣冷，不思飲食，吐水”⁷⁸⁾는 胃氣不和를 말하고 “面晄白，色弱，腹痛不思食，下痢”⁷⁹⁾는 胃冷虛，“面晄白，心腹痛。口中沫及青水出，發痛有時”⁸⁰⁾는 蟲痛을 가리키므로, ‘面晄白’ 하나만의 증상으로 여러 가지 臨床症候와 결합하여 不同한 病症을 설명하였다.

또한 「黃相似」에서는 “諸疸皆熱，色深黃者，是也”⁸¹⁾와 “若淡黃兼白，胃怯，胃不和也”⁸²⁾라 하였고 「吐乳中」에서는 “吐瀉瀉黃，傷熱乳也。吐瀉瀉青，傷冷乳也。皆當下”⁸³⁾라 하였고, 그 밖에 「雜病證」과 「不治證」에서 “目赤兼青者，欲發搐”⁸⁴⁾과 “目直而青，身反折強直者，生驚”⁸⁵⁾，“咬牙甚者，發驚”⁸⁶⁾이라 지적하였고, “顛腫及陷，鼻乾黑，魚口氣急，吹鼻不噴”⁸⁷⁾ 등의 증상은 危重하다고 하였다.

기타 「弄舌」에서는 “脾藏微熱，令脈絡微緊”⁸⁸⁾이라 하였고, 『直訣·矛測驚搐案』에서 「肺熱」은 “手招眉目鼻”⁸⁹⁾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錢씨는 四診 가운데 특히 望診을 중시하였고 五臟辨證을 치밀하게 종합하여 소아 질환을 감별하였고, 이에 관한 대표적인 논술은 「目內證」과 「面上證」에서

76) 前掲書：『小兒藥證直訣』「原序」, p.7.
 77) 上掲書：『小兒斑疹略急方論·錢乙後序』, p.138.
 78) 上掲書：『胃氣不和』, p.27.
 79) 上掲書：『胃冷虛』, p.28.
 80) 上掲書：『蟲痛』, p.28.
 81) 上掲書：『黃相似』, p.22.
 82) 上掲書：『黃相似』, p.22.
 83) 上掲書：『吐乳』, p.23.
 84) 上掲書：『雜病證』, p.36.
 85) 上掲書：『雜病證』, p.36.
 86) 上掲書：『雜病證』, p.36.
 87) 上掲書：『不治證』, p.38.
 88) 上掲書：『弄舌』, p.32.
 89) 上掲書：『肺熱』, p.5.

다음과 같다.

① 面上證

『直訣·面上證』에서 말하길 “左顛爲肝, 右顛爲肺, 額上爲心, 鼻爲脾, 頰爲腎, 赤子熱也, 隨證治之”⁹⁰⁾라 하였다. 즉 五臟이 얼굴 부위에 주관하는 부위가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面上 어느 부위에 赤色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熱症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隨證治之”⁹¹⁾라 함은 다른 症狀을 綜合하고 分析한 것을 참고한 다음에 ‘辨證施治’함을 의미한다. 이는 錢씨가 『素問·刺熱篇』의 이론을 근거하여 『직결』에서 그의 학설을 주장하여 후세에 소아과 面部 望診에 관한 이론을 다지고 있다.

이러한 錢씨의 이론은 『素問·刺熱篇』 “肝熱病者左頰先赤, 心熱病者顏先赤, 脾熱病者鼻先赤, 肺熱病者右頰先赤, 腎熱病者頤先赤. 病雖未發, 見赤色者刺之, 名曰治未病”⁹²⁾이라 하였으니, 五臟의 熱病이 주관하는 부위가 錢씨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한다.

② 目內證

『直訣·目內證』에서 말하길 “赤者心熱, 導赤散主之. 淡紅者心虛熱, 生犀散主之. 青者肝熱, 瀉青丸主之. 淺淡者, 補之. 黃者脾熱, 瀉黃散主之. 无精光者腎虛, 地黃丸主之.”⁹³⁾라 하였다. 즉 눈의 顏色을 살펴서 질병의 속성을 판단하여 方藥을 정하며, 동시에 오장의 허실을 판별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錢씨의 이론은 『靈樞·大惑論』의 “五臟六腑之精氣, 皆上注于目”⁹⁴⁾과 『素問·脈要精微論』의 “夫精明五色者, 氣之華也”⁹⁵⁾와 『靈樞·五閱五使』의 “肝病者皆青……”⁹⁶⁾ 등의 이론을 충실하게 따라 자신의 학설을 전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밖에도 錢씨는 『직결』의 「染病證」과 「不治證」 가운데서 望診의 진찰 방법과 유관한 내용을 지적하여, 소아 진단의 방법을 확립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4) 小兒五臟辨證의 綱領을 確立

90) 上揭書 : 『面上證』, p.8.

91) 上揭書 : 『面上證』, p.8.

92) 前揭書 : 『精校黃帝內經素問』, p.66.

93) 前揭書 : 『小兒藥證直訣』 「目內證」, p.8.

94) 前揭書 : 『精校黃帝內經靈樞』, p.345.

95) 前揭書 : 『精校黃帝內經素問』, p.37.

96) 前揭書 : 『精校黃帝內經靈樞』, p.274.

錢씨는 『내경』의 五臟과 五行, 五臟 病機 및 五臟 虛實 등의 이론을 근거하였다. 동시에 諸家들의 五臟病機에 관한 논술을 참조하여 소아의 증후 특징을 결합시켜 五臟에 따른 證治의 綱領을 다음과 같이 확립하였다.

① 五臟 辨證

『直訣·卷上』에서 脈證의 治法 가운데 「五臟所主」·「五臟病」等篇은 바로 錢씨가 소아의 오장변증에 관하여 기술한 것으로 五臟辨證의 綱領이라 수 있다. 이 辨證綱領은 五臟의 기초 위에 症候를 의거하여 寒熱虛實을 판별하였다. 그 가운데서 ‘風、驚、困、喘、虛’를 肝、心、脾、肺、腎의 중요한 症候의 특징으로 귀납하였고, 虛、實、寒、熱로 장부의 병리 변화를 판단하였다. 五行을 사용하여 五臟들간의 관계와 氣候와 時令의 관계에 있어 상호관계, 그리고 五臟補瀉 諸方의 治療에 있어 기본 방제를 응용하였다.⁹⁷⁾

㉠ 心主驚

叫哭發熱、渴飲袖搖의 증상은 火氣가 有餘한 實證으로 清心瀉火하여 上升之氣火를 抑制하는데 ‘瀉心湯’으로 다스리고, 口中氣溫、心胸部熱、避熱就冷、俯臥、咬牙의 증상은 心火가 有餘하면서 心陰이 不足한 實中挾虛症으로 清心養陰、利水導熱하는데 ‘導赤散’으로 다스리고, 目淡紅의 陰虛血熱에 外邪를 挾한 경우는 ‘生犀散’으로 다스리고, 面黃挾赤、身狀熱、心身恍惚의 증상은 ‘安身丸’을 사용하여 清熱泄火、重墮鎮怯하여 邪를 泄하고 臟을 補한다.⁹⁸⁾

㉡ 肝主風

目直視、大叫哭鬧、呵欠、突然悶絕、頸項強直은 肝經의 有餘한 實證으로 ‘大青膏’로 發散하거나 ‘大黃丸’으로 微下하고 이미 抽搐、脈洪實이 나타나는 경우는 ‘瀉青丸’으로 瀉肝定搐하고 ‘抱龍丸’으로 肝木을 平하고 驚風을 방지한다. 肝은 인체의 生發之氣에 해당하므로 小兒初生時는 草木方萌과 生氣蓬勃함에 해당하므로 補肝의 처방은 善用하지 않는다. 만약 肝虛氣鬱한 경우는 呵欠이 나타날 수 있으며 肝虛胃弱한즉 咬牙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補腎滋肝과 壯水榮木의 처방을 사용하며 ‘地黃丸’을 사용할 수 있다.⁹⁹⁾

97) 前掲書：『兒科宗師錢仲陽』, p.16

98) 前掲書：『小兒藥證直訣』, pp.1~3, p.5, p.48, pp.50~51.

99) 上掲書：pp.1~4, p.63, p.78.

㊤ 脾主困

脾病에는 多寐少納、大便泄瀉 등의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 倦怠多臥、身熱飲水는 脾被濕熱所困之實證으로 ‘瀉黃散’을 사용하여 脾經의 實熱을 淸瀉하고, 吐瀉不止、久成慢驚은 脾氣虛弱한 虛證으로 ‘益黃散’을 사용하여 理氣建脾、化濕瀉腸한다. 脾陽이 虛한 경우는 ‘調中丸’이나 ‘溫中丸’으로 補虛溫中하고, 脾氣가 虛한 경우는 ‘異攻散’으로 補氣理滯하고, 脾虛氣陷、口渴便瀉한 경우는 ‘白朮散’으로 益氣生津、升陽止瀉하며, 胃陰이 傷하고 氣逆嘔吐한 경우는 ‘藿香散’으로 胃陰을 養하고 胃逆을 그치게 한다.

脾는 後天의 本이며 生化의 根源으로 소아의 生氣와 發育을 주관한다. 신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소아들의 개인에 따라서 臟腑가 幼嫩한 虛弱兒의 경우는 영양에 대한 수요는 큰데 비해 소화 부담이 큰 대비를 이루게 된다. 가정 소아의 식생활이 질제를 잃게 되면 생활에 규율이 깨어지고 冷熱한 食物을 섭취하거나 飢飽失道하면 脾胃의 受納機能이 紊亂하게 된다. 이밖에 기타 장부로 인한 질병이 유발되었을 경우에 있어 藥毒의 過다 복용은 不當하며, 이는 비위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때로는 中氣를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錢씨는 脾胃의 虛實寒熱에 따른 觀察을 통하여 많은 처방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小兒의 脾胃氣血을 保存하고 中氣가 損傷되는 것을 방지하였다.¹⁰⁰⁾

㊤ 肺主喘

外邪를 感受하여 肺熱內盛하게 되면 胸悶氣急而喘、口渴(或不渴)의 증상이 잘 나타나며, 이러한 경우는 肺實의 증상에 속하므로 마땅히 補氣益陰하여야 한다. ‘瀉白散’은 瀉肺淸熱하여 壯熱飲水、喘悶이 나타나면서 表證이 없는 肺實證을 다스리고, ‘甘桔湯’은 開泄肺熱하여 小兒手摺眉目鼻面의 肺熱症을 다스린다. 이 처방들은 모두 肺經實證에 골고루 사용되며, 다만 前者는 里瀉하고 後者는 外散함에 응용한다. 만약 久嗽咽乾、痰少不豁한 肺虛症에는 ‘阿膠散’으로 補陰宣肺氣한다.¹⁰¹⁾¹⁰²⁾

㊤ 腎主虛

腎虛에는 兩目無神、畏光、面色晄白、骨弱、行遲齒遲、腦門遲合、頭大額方、病後失音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地黃丸’을 사용하여 補益腎陰한다. 瘡疹黑陷은 腎陰虛하고 邪氣가 實한 症으로 本虛하고 標實한 症이다. ‘地黃丸’으로 腎中の 眞水를 補

100) 前掲書：『兒科宗師錢仲陽』, p.7.
 101) 上掲書：pp.17~18.
 102) 前掲書：『小兒藥證直訣』, pp.1~3, p.20.

함이 마땅하다. 腎은 先天의 本이다. 소아의 稟賦는 父母로부터 根源함에 만일 출생한 후에 調養함을 잃어버리면 腎精을 저장하는 기능을 잃게 된다. 즉 腎은 蟄臟으로서 五臟六腑의 精氣를 받아 藏하는데 소아의 臟腑가 柔弱하면 腎中陰血이 부족하게 된다.103) 『素問·上古天真論』에서 이르기를 “女子七歲腎氣盛, 齒更發長……丈夫八歲腎氣實. 發長齒更”104)라 하였으니, 이는 小兒의 腎氣未充과 無慾念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錢씨는 소아 생리의 특징인 ‘腎主虛’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학설을 주장함에 있어, 腎陰虛의 一面을 강조하였지만 반면에 腎陽虛의 一面도 가벼이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를테면 『直訣·腫病』에서 ‘腫病’의 病機105)를 ‘腎陽虛하여 水氣泛濫하여 脾土를 反侮하고, 心火를 克制하여 肺에 上凌하니 이는 腎의 寒水之氣가 太過한 實證이라’고 주장하였으니, ‘腫病’의 본질은 腎陽虛에서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錢씨는 五臟分症을 비록 강조하였지만 五臟들 사이의 상호 관계 및 四季氣候의 臟腑에 대한 영향도 중시하였다. 이를테면 ‘袖搐’一症에 관하여 “目連筋不搐得心熱則搐, 治肝, 瀉青丸. 治心, 導赤散, 主之”106)라 하였으니, 抽搐은 肝風으로만搐이 되지는 않고 心熱을 얻은 이후에 熱盛하면 發搐하게 되므로 치료도 心肝之熱를 清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假令肺虛而痰實, 此可下, 先當益後方瀉肺”107)이라 하였는데, 虛中挾實의 증상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먼저 中氣를 補하고 後에 痰實를 瀉하는데 扶正邪去의 목적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그는 益脾함은 母가 能히 子를 實하게 한다고 하여 “肝病秋見, 肝強勝肺, 肺怯不能勝肝, 當補脾肺治肝. 益脾者, 母能令子實故也. 補脾, 益黃散, 治肝, 瀉青丸主之”108)라 하였으니 이는 후세의 ‘培土生金抑木’의 ‘隔一療法’의 先河라 하겠다.

五臟 가운데 肝은 補가 없고 腎은 瀉가 없으니 瀉肝에 瀉青丸을 補腎에는 地黃丸을 사용함은 ‘乙癸同源, 肝腎同治’과 ‘瀉肝即所以瀉腎, 補腎即所以補肝’의 始祖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錢씨는 오장의 상호관계와 자연계의 통일적인 整體觀을 강조하였으니, 小兒 五臟病證에 따른 치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103) 前揭書：『兒科宗師錢仲陽』, p.18.

104) 前揭書：『精校黃帝內經素問』, p.11.

105) 前揭書：『小兒藥證直訣』『腫病』, p.35.

：“腫病, 腎熱于膀胱, 膀胱熱盛. 逆于脾胃, 脾胃虛而不能制腎. 水反克土, 脾隨水行, 脾主四肢, 故流走而身面皆腫也.”

106) 上揭書：『肝有風』, p.9.

107) 上揭書：『五臟相勝輕重』, p.37.

108) 上揭書：『肝病勝肺』, p.8.

小兒五臟病證治簡表

五臟	主證	五臟病證	五臟虛實分証	面目証目上証	常用主方
心	驚	多叫哭, 驚悸, 手足動搖, 發熱飲水	實則叫哭發熱, 飲水而搐. 熱則口中氣溫, 或合面睡 及上竄咬牙 心胸亦熱	目內赤, 額上赤	瀉心湯, 導赤散
			虛則臥而悸動不安	目淡紅	生犀散, 安神丸
肝	風	哭叫目直, 阿欠頓悶, 項急	實則目直大叫, 阿欠, 項急, 頓悶, 甚則身半折強直, 熱則手尋衣領及亂捻物, 壯熱飲水 喘悶或目直視不搖	目內青 左腮赤	瀉青丸, 利驚丸
			虛則咬牙多欠氣 目內淺淡	目淡青	地黃丸
脾	困	困睡 泄瀉 不思飲食	實則困睡身熱 飲水	目內黃 臥則不露睛 鼻赤	瀉黃散, 玉露散
			虛則吐瀉生風	臥則露睛面黃	藿香散, 益黃散
肺	喘	悶熱, 硬氣, 長出氣, 氣短喘息	實則悶亂喘促, 有飲水者, 有不飲水者, 熱則手招眉目鼻面	右腮赤	瀉白散, 葶蘆丸
			虛則硬氣, 長出氣	虛熱唇深紅色 氣虛唇白色	補肺阿膠散 益黃散
腎	虛	無睛光, 畏明, 體骨重, 解顛, 骨痿身傾. 龜背龜胸, 五遲	無實證 惟瘡疹 腎實則變黑陷.	頰赤	
			虛則面色晄白, 畏明, 體骨重, 不語, 解顛, 凶陷, 五志, 五軟	目無睛光, 目中白睛多	地黃丸

② 辨證意義

위에서 언급한 변증의 강령은 錢씨가 五臟의 主證과 病證에 따른 虛實의 分證함에 분명히 오장을 중심으로 삼았고, 證候를 근거하여 虛實과 寒熱에 따른 論治의 準칙으로 삼았다. 그 가운데 ‘風, 驚, 困, 喘, 虛’를 간, 심, 비, 폐, 신의 중요한 證候特徵으로 귀납하였고, 한열허실을 이용하여 장부의 병리적인 변화를 판단하였다. 또한 그는 오행을 이용하여 오장들 간의 상호 관계, 오장과 기후 時令의 상호 관계를 밝혀 오장보사의 기본적인 방제로 세움으로써 실제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여 번잡한 것을 간략화 하였다.

③ 主證을 『內經』에 따른 分析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南方生熱, 熱生火……在臟爲心”¹⁰⁹⁾와 『素問·靈蘭秘典論』의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¹¹⁰⁾이라 하여 心은 火에 속하여 神明을 主한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소아의 神氣는 怯弱하여 큰 소리를 들으면 쉽게 놀라고, 熱邪를 받으면 心火가 內動하고 神이 居處하는 곳을 지키지 못하므로 易驚한다.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東方生風……在竅爲目”¹¹¹⁾에 근거하면, ‘肝이 木에 속하여 風을 主하고 筋을 主하고 그 聲은 呼이며 目에 開竅한다’고 설명하였다. 소아는 眞陰

109) 前掲書 : 『精校黃帝內經素問』, p.19.

110) 上掲書 : p.24.

111) 上掲書 : pp.18~19.

이 부족하고 柔弱하고 不剛하니 熱邪를 받아 熱이 極하여 風을 生하면 風熱이 相搏하기에 쉽게 痙攣이 일어난다.

『素問·太陰陽明論』의 “脾者土也，治中央”¹¹²⁾과 『素問·陰陽應象大論』의 “中央生濕……在體爲肉，在臟爲脾”¹¹³⁾에 근거하면, ‘脾가 土에 속하여 中央을 다스리고 水穀의 運化를 主하고 肌肉을 主한다’고 설명하였다. 소아는 음식을 運化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일단 邪氣를 받거나 혹은 음식 섭취에 질도가 없으면 가장 쉽게 脾를 傷한다. 따라서 脾에 濕病이 들면 肢體가 무겁고 눅기를 좋아하고 飢渴하고 나른하게 된다.

『素問·陰陽應象大論』의 “西方生燥，燥生金……在體爲皮毛，在臟爲肺……在變動爲咳，在竅爲鼻”¹¹⁴⁾에 근거하면, ‘肺는 金에 속하여 밖으로는 皮毛와 相合하고 鼻로 開竅하니 肺氣가 不利하면 咳嗽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소아의 肺氣는 軟弱하고 肌肉과 腠理가 固密하지 못하므로 쉽게 外邪와 感應하고 邪氣가 皮毛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口와 鼻로부터 侵入하여 들어와 먼저 肺를 傷하게 한다. 따라서 肺病으로 인하여 氣機가 失調하면 喘咳가 발생하게 된다.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北方生寒，寒生水……在臟爲腎”¹¹⁵⁾과 『素問·六節臟象論』의 “腎者……精之處也……其充在骨”¹¹⁶⁾에 근거하면, ‘腎은 水에 속하여 藏精을 主하고 骨을 主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소아는 부모로부터 받은 稟賦가 부족하여 근본적으로 허약하여 氣血이 아직 충실하지 못하다. 만약 後天이 滋養함을 失調하고, 腎精이 다시 補充되지 못하면 일단 병이 들면 腎은 虛證이 되는 경우가 많다. “惟瘡疹，腎實則變黑陷”¹¹⁷⁾의 논술은 熱邪가 腎虛로 內陷하여 實證에 속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腎氣實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錢씨는 ‘風、驚、困、喘、虛’로써 소아 오장 병증의 주요한 증후를 개괄하였고, 실제 임상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론을 설명함이 『내경』의 뜻을 꿰고 있다.

④ 虛實論治

錢씨는 오장을 증상별로 구분하여 虛實兩類(虛實寒熱을 包括한다)로 나누었다. 補瀉諸方 가운데 “盛則下之，久則補之”¹¹⁸⁾의 원칙을 삼아 ‘熱者寒之’와 ‘寒者溫之’의 치료 법칙을

112) 上揭書：p.62.

113) 上揭書：p.19.

114) 上揭書：p.19.

115) 上揭書：p.19.

116) 上揭書：p.26.

117) 前揭書：『小兒藥證直訣』「五臟所主」, p.4.

118) 上揭書：「咳嗽」, p.25.

확정하였는데, 이는 『내경』의 온량보사의 “治病求本”¹¹⁹⁾ 등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았다. 五臟의 分證을 관찰하면 實熱證이 虛熱證으로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아 장부가 柔弱하여 생명기능이 왕성하지 못하여 邪氣에 감응한 후, 熱證으로 변화하여 陽熱亢盛의 實熱證狀 과 津液損傷의 虛熱證이 나타나게 된다. 이점을 착안하여 錢씨는 ‘瀉心湯’、‘導赤散’、‘瀉青丸’、‘利驚丸’、‘瀉黃散’、‘玉露散’、‘瀉白散’、‘葶藶丸’을 만들어 心、肝、鼻、肺의 實熱을 清瀉하는 기본적인 처방과 약물을 분류하였고, ‘生犀散’、‘安神丸’、‘藿香散’、‘阿膠散’、‘地黃丸’으로 心、肺、胃、肝、腎의 陰을 補益하고 虛熱을 물리치는 중요한 처방과 약물을 분류하였다.

⑤ 整體觀을 重視

錢씨는 오장 자체의 證治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단지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는 견지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장들 간의 상호 영향과 사시 기후와 장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였다.

‘陰陽五行’학설은 『내경』 이론 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錢씨는 오행의 ‘生克乘侮’이론을 운용하여 오장과 함께 나타나는 病證의 虛實과 豫候를 판별하는 것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治法의 運用을 採擇하였으니 이 또한 錢씨의 ‘五臟辨證論治’이란 하나의 특징이다. 만약 肺病과 함께 肝虛證이 나타나면(咬牙, 多呵欠), 肝虛는 肺를 勝할 수 없으며 肺金은 오히려 肝木을 억제할 수 있기에 쉽게 치료된다. 만약 肺病에 肝實證이 나타나면(目直, 大叫哭, 項急, 頓悶), 肺病이 오래되어 점점 虛冷해져 木을 억제하지 못하면 肝木이 반대로 實하여 金을 侮하기 때문에 치료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치법은 『直訣』에서 “視病之新久虛實, 虛則補母, 實則瀉子”¹²⁰⁾ 등의 치료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四時氣候論治와 臟腑病症時를 결합시킴에 있어 錢씨는 하루를 四時로 一年을 四季로 나누어서, 各分을 四臟이 주관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肝病은 가을철 肺金이 마땅히 왕성한 시기에 발생하니(或作日晡), 이는 “肝强勝肺, 肺怯不能勝肝, 當補脾肺治肝. 益脾者, 母令子實故也.”¹²¹⁾라 하였다. 또한 『直訣·肺病勝肝』에서 肺病은 봄철인 肝旺의 시기에 발생하는데(或作早晨), 이에 관하여 “肺勝肝, 當補腎肝治肺臟, 肝怯者受病也.”¹²²⁾라 하였다. 그 나머지 心病이 겨울에 발생하며, 腎病이 가을에 발생하며, 脾病이 四季에 발생하는 것 등은 모두 相勝輕重의 변화가 相應治法에 따른 것이다.

119) 前揭書：『黃帝內經素問』, p.18.

120) 前揭書：『小兒藥證直訣』「五臟所主」, p.4.

121) 上揭書：『肝病勝肺』, p.8.

122) 上揭書：『肝病勝肝』, p.9.

이는 五臟과 四時五行에 따른 질병이 인체에 영향을 미침을 논술하는 것이다. 錢씨는 이와 같이 發病時間과 질병과의 관계를 결부시켜 時間醫學의 特色을 지적하였으니, 바로 『靈樞·四時氣』의 “四時之氣, 各不同形, 百病之起, 皆有所主”¹²³⁾의 이론을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이 錢씨의 오장 변증 이론은 비록 『내경』의 「風論」、 「痺論」、 「痿論」、 「咳論」 등 各篇을 근본 하여 『難經』과 『金匱要略』의 다른 학설이지만, 단지 그가 선택하고 나열한 五臟主症은 전인들의 이론적인 근거를 토대로 발전시킨 것이다.

錢씨의 소아과의 특징은 오장을 중요한 강령으로 삼아 증후를 진단함에 있어서도 五臟分證에 따른 것이다. 이를테면 錢씨가 언급한 「諸疳」은 脾胃虛弱으로 인한 傷亡津液을 통틀어 말한 것이며,¹²⁴⁾ 각기 다른 形證의 心、 肝、 脾、 肺、 腎、 筋、 骨 등 일곱 가지 종류의 형태로 분류하였다.¹²⁵⁾ 이 밖에 「瘡疹」에서 “五臟各有一證”¹²⁶⁾이라 하여 肝은 水疱、 肺는 膿疱、 心은 斑、 脾는 疹 등의 증상이 腎으로 歸着되면 모두 검게 변해서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였다.¹²⁷⁾ 또한 錢씨는 「五癩」에서는 병증을 포괄한 오장을 운용하는 구체적인 변증이 나타난다.¹²⁸⁾

(5) 脾胃機能의 重視

錢씨의 五臟虛實에 따른 論治에 있어 비록 五臟은 상세하지만 六腑는 간단하다. 그러나 육부에 속하는 胃腑에 관련하여 그는 전문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錢씨의 사상은 『素問·太陰陽明論』의 “脾與胃以膜相連耳, 而能爲之行其津液……其脈貫胃屬脾絡噎”¹²⁹⁾에 근본 하여 脾胃가 생리、 병리적으로 밀접하고 유관함을 『직결』에서 “脾胃虛衰, 四肢不舉, 諸邪遂生”¹³⁰⁾이라 하여 小兒의 內傷病은 脾胃失調로써 더욱이 뚜렷하게 임상적으로 대비된다고 여겼다.

外因의 疫癘之邪와 內傷의 飲食所傷 및 稟賦不足으로 인한 소아 질환은 말기에 熱化之證으로 쉽게 나타난다. 따라서 錢씨는 치료에 있어 소아의 생리와 병리적인 특징 외에 小兒熱性病의 치료에 있어 清涼解毒과 芳香開竅의 치법을 중시하였다.

123) 前揭書：『精校黃帝內經靈樞』, p.248.

124) 前揭書：『小兒藥證直訣』 「諸疳」, p.26.

：“疳, 皆脾胃亡津液之所作也”

125) 上揭書：「諸疳」, pp.25~27.

126) 上揭書：「瘡疹候」, p.15.

127) 上揭書：「瘡疹候」, p.14~17.

128) 上揭書：「五癩」, p.14.

129) 前揭書：『精校黃帝內經素問』, p.62.

130) 前揭書：『小兒藥證直訣』 「腹中有癖」, p.30.

이러데면 ‘疱疹’의 치료에 있어 “疱疹屬陽，出則爲順”¹³¹⁾을 인식하여 질환의 초기에는 妄下와 妄攻으로 치료함이 마땅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¹³²⁾ 만약 熱旺毒盛할 경우는 마땅히 ‘百祥丸’으로 解毒하고 ‘生犀磨汁’으로 涼血하고 ‘抱龍丸’으로 清涼開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³⁾

또한 ‘急驚’一症은 涼瀉의 치법을 주장하여 ‘瀉心湯’이나 ‘導赤散’으로 “導赤散으로 心火를 瀉하고, 瀉靑丸으로 肝熱을 瀉하고, 大黃丸으로 裏熱을 下하고, 利驚丸으로 痰熱을 下하고, 抱龍丸으로 開竅醒神한다.”¹³⁴⁾고 주장하였다.

또한 錢씨는 소아의 脾胃根治함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虛羸、積、疳、傷食、吐瀉、腹脹、慢驚、蟲 등의 질환을 脾胃論治에 따랐고, 疱疹、咳嗽、黃疸、腫病、夜啼 등의 질환을 脾와 胃의 관계에 상관하여 치료하였다.

이러데면 虛羸는 “脾胃不和，不能食乳致肌瘦，亦因大病 或 吐瀉後，脾胃尙弱，不能傳化穀氣”¹³⁵⁾한 까닭이라 언급하였고, 積(腹中有癖)은 “由乳食不消，伏在腹中”¹³⁶⁾과 “脾胃不能傳化水穀”¹³⁷⁾한 까닭이라 언급하였고, 諸疳은 “皆脾骨病，已津液之所作也”¹³⁸⁾이며, 夜啼는 “脾臟冷而痛”¹³⁹⁾한 까닭이라 언급하였다. 또한 傷風兼手足冷、自痢、腹脹은 “脾臟胃虛怯”¹⁴⁰⁾한 까닭이라 언급하였고, 咳嗽는 “痰盛者，先實脾”¹⁴¹⁾이며, 腫病은 “脾胃虛而不能制腎”¹⁴²⁾의 所致라 言及하는 등 脾胃失調는 각종 질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脾胃를 調治하는 것을 여러 소아과 질병을 치료하는 관건으로 삼았다.

때문에 錢씨는 脾胃를 먼저 調治하여 中氣를 回復시켜 本病을 치료하거나 혹은 먼저 攻下한 이후에 다시 補脾 혹은 益肺、益腎 등의 치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小兒虛不能食，當補脾，後飲食如故，卽瀉肺經，病必愈”¹⁴³⁾이나 “實食在內，乃可下之。下畢，補脾必愈”¹⁴⁴⁾이라 하여 小兒脾胃를 다스림에 攻不傷正、補不碍邪、冷去不熱、冷去不熱의 방법을 중시하고, 消補兼施、寒熱竝投、以動爲補、力求柔潤 등의 치법

131) 上揭書：「瘡疹候」, p.16.

132) 上揭書：「瘡疹候」, p.15.

：“惟用溫涼藥治之，不可妄下及妄攻發”

133) 上揭書：「瘡疹候」, pp.14~17.

134) 上揭書：「肝有風甚」, 「早晨發搐」, 「日午發搐」, 「夜間發搐」, pp.9~11.

135) 上揭書：「虛羸」, p.24.

136) 上揭書：「腹中有癖」, p.29.

137) 上揭書：「腹中有癖」, p.29.

138) 上揭書：「諸疳」, p.26.

139) 上揭書：「夜啼」, p.31.

140) 上揭書：「傷風手足冷」, 「傷風自利」, 「傷風腹脹」, p.18.

141) 上揭書：「咳嗽」, p.25.

142) 上揭書：「腫病」, p.35.

143) 上揭書：「記嘗所治病二十三證」, 肺熱咳嗽變證案, p.43.

144) 上揭書：「記嘗所治病二十三證」, 虛體吐瀉壯熱案, p.49.

을 사용하여 小兒脾胃의 虛實寒熱에 따른 변화와 燥濕昇降의 성질을 적용하여 치료에 임하였다.

또한 그가 치료에 있어 脾陽에 중점을 둔 것 외에 胃中津液의 顧護를 중시하였는데, 吐瀉傷津、內熱耗津、誤治損津의 경우는 모두 亡失胃陰이라 하였고, 口渴喜飲水、身瘦、皮乾、昏睡、露睛、甚或發熱、吐瀉、汗出 등의 증상을 다스림에 있어 ‘胃中の 津液을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여 ‘玉露散’으로 瀉然益胃하고, ‘藿香散’으로 甘香養胃하고, ‘白朮散’으로 升陽生津하고, ‘香瓜散’으로 甘潤護胃한다고 주장하여 胃陰學說의 提倡하였다.¹⁴⁵⁾ 稟賦虛弱과 腎氣不足은 소아 질환에 있어 內傷病을 일으키는 중요한 因素이다. 腎은 主骨하므로 『직결』에서는 龜背龜胸、行遲、腎怯失音、解顛 등의 질환은 모두 均從腎調治하라 하여 ‘地黃丸’을 사용하여 滋補腎陰、強壯筋骨함에 중점을 두어 骨格의 성장 발육하는데 이롭게 하였다. 久病不愈는 窮必歸腎이라 하여 ‘疝症’의 말기에 신체가 消瘦하는 경우에도 ‘地黃丸’으로 치료할 것임을 당부하였다.¹⁴⁶⁾

(6) 用藥의 特徵

『小兒藥證直訣』은 소아과에서 쉽게 보이는 질환인 痘、痧、驚、疳 등의 重症에 관하여 치료 이론은 없지만 方劑가 기재되고 있다. 여기서는 古方을 바탕으로 新方을 창안하고 있는데, 錢씨는 자신의 의학적 이론을 經文에서 지적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經文에 따른 證狀을 밝힘

㉠ 腎虛

『靈樞·千年』에서 “願聞人之始生……以母爲基，以父爲楨。失神者死，得神者生”¹⁴⁷⁾이라 하여 父精과 母血은 생명의 기초로 先天稟賦의 이론에 해당한다. 따라서 錢씨는 稟賦가 不足하여 腎氣가 未充함이 소아 內傷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여, 『직결』에서 “兒本虛怯，由胎氣不成則神不足，目中白睛多，其顛卽解……或有因病而致腎虛……皆宜補腎，地黃丸主之”¹⁴⁸⁾라 하였다. 嬰兒虛怯에 관하여 설명하길 先天不足하거나 後天의 營養不失하여 결국 小兒腎虛의 증상을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치료할 때는 腎

145) 前揭書：『兒科宗師錢仲陽』, pp.20~21.

146) 上揭書：『腎虛』, 『腎怯失音相似』, 『解顛』, 『龜背龜胸』, pp.7~8, p.22, pp.32~33, p.35.

147) 前揭書：『精校黃帝內經靈樞』, p.301.

148) 前揭書：『小兒藥證直訣』, 『腎虛』, p.7.

을 滋補함이 마땅하며 地黃丸으로 다스린다고 하였다. 錢씨는 소아의 先天不足은 정수리가 닫혀지지 않고, 脊과 胸이 갈라지고 行動과 말이 느리고 腎怯失音 등의 病證이 나타남은 모두 治腎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咳嗽

錢씨는 咳를 虛、實、寒、熱에 따른 病辨을 하여 대부분 治肺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직결』에는 “痰盛者, 先實脾”¹⁴⁹⁾라 하였는데, 즉 痰盛하여 咳嗽로 미치는 경우는 痰重하므로 치료는 脾에 있음을 말한다. 즉 錢씨의 咳嗽 치법은 肺의 整體觀念에 구속되지 않는데, 『素問·咳論』의 “五臟六腑皆令人咳, 非獨肺也”¹⁵⁰⁾의 이론에 따르고 있다.

㉡ 吐瀉

소아의 吐瀉는 대부분 여름과 가을에 발생한다. 원인은 暑熱이 腸胃로 들어가 邪熱이 아래로 내려가 압박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暑가 濕을 압박하여 濕性이 脾를 가두어서 運化作用의 失調로 쉽게 吐瀉하게 된다. 더구나 소아는 生冷한 것을 먹기 좋아하여 청결한 것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脾胃의 陽이 손상되어 寒濕이 內盛한다. 이는 大腸으로 瀉下하게 하고 胃氣가 上逆을 하여 吐하게 된다.

錢씨는 소아의 易虛、易實、易寒、易熱하는 질병의 특징을 인식하여 臨証에 있어 기후의 변화는 脾胃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약물을 사용할 때는 寒、熱、溫、涼이 기후의 변화에 따라 藥性이 변화하는 바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직결』에서 立夏 이후에 吐瀉가 발생하면 “小兒臟腑十分中九分熱”¹⁵¹⁾이라 하여, 實熱證에 두어 玉露散으로 脾熱을 瀉하였다. 中秋 이후의 吐瀉는 脾胃寒으로 발생하게 되니 “身冷無陽”¹⁵²⁾의 경우로 虛寒證에 두고 益黃散으로 補脾하였다. 여름과 가을 사이는 脾胃寒熱의 多少를 살펴 補瀉 두 가지의 약물로 질병을 다스렸다. 이러한 관점은 계절에 따른 臟腑寒熱多少에 따라 吐瀉를 辨別하여 다스렸다.

㉢ 發搐

『直訣·脈證治法』에서 發搐의 병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錢씨는 새벽、낮、저녁、밤사이의 發搐을 중시하였고, 肝、心、肺、腎의 四臟으로 辨別하였다.¹⁵³⁾ 脾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脾는 慢驚을 유발하기 때문이며, 『素

149) 上揭書：「咳嗽」, p.25.

150) 前揭書：『精校黃帝內經素問』, p.77.

151) 前揭書：『小兒藥證直訣』「夏秋吐瀉」, p.23.

152) 上揭書：「夏秋吐瀉」, p.23.

153) 上揭書：「肝有風甚」, 「早晨發搐」, 「日午發搐」, 「夜間發搐」 pp.9~11.

問·太陰陽明論』의 “脾不主時”에 따라 四季로 나누었다.

예를 들면 早晨發搐은 寅卯辰時에 신체가 壯熱하고, 目は 위를 보며, 手足은 운동하고 움직이며, 口內에는 熱涎이 생기고 項頸은 急하게 되고, 肝이 왕성해진다. 따라서 마땅히 腎을 補하고 肝을 치료하며, 補腎함에 있어 地黃丸을 사용하고 治肝함에 있어 瀉靑丸을 사용한다. 肝木亢盛의 상황을 腎水의 不足에 두어 地黃丸으로 水滋하고 木涵하니 驚搐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② 方劑를 구성할 경우는 經旨를 따름

㉠ 柔潤한 약물의 사용에 힘씀

錢씨는 古方을 소아에 적절하게 적용시켰고 소아의 생리 병리적 특징에 항상 주의하였다. 錢씨는 『靈樞·逆順肥瘦』의 “嬰兒者, 其肉脆血少氣弱”¹⁵⁴⁾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직결』에서는 方劑를 軟輕하고 精微롭게 구성함에 小兒 五臟의 虛實寒熱에 주의하였다. 그는 祛邪務盡의 원칙 아래 攻不傷正하고 補不滯邪、消補兼施、寒熱並投에 處方의 主안점을 두어 당시의 香燥한 약물의 偏向되게 濫用함에 반대하여 柔潤治法의 方劑로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생각은 『素問·腹中論』의 “石藥發癲, 芳香發狂……恐內傷脾”¹⁵⁵⁾의 내용과 부합한다. 이를테면 異功散 계통의 六君子湯에 半夏를 제거하고 처방을 구성하여, 補함이 있고 邪氣를 不滯하게 하여 溫하나 不燥하여 특히 小兒의 脾常不足에 적절하게 운용하였다. 또한 『金匱要略』의 腎氣丸에 桂枝와 附子를 제거한 地黃丸을 사용하여 陰柔하고 補虛하였으니, 이는 小兒의 陰은 항상 不足하므로 益火할 필요가 없음을 王冰의 “益火之源, 以消陰翳. 壯水之主, 以鎮陽光”¹⁵⁶⁾과 『素問·至真要大論』의 “諸寒之而熱者, 取之陰”¹⁵⁷⁾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었다.

㉡ 점진적으로 약물의 용량을 감소함

『직결』의 醫案에 錢씨가 「伏熱吐瀉案」¹⁵⁸⁾을 다스린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病吐瀉不止, 水穀不化”¹⁵⁹⁾라고 기술하였다. 이 질환은 六月에 발생하며 날씨가 暑熱하기에 暑熱의 邪氣가 “伏入腹中”¹⁶⁰⁾과 “熱傷脾胃”¹⁶¹⁾과 “大吐瀉”¹⁶²⁾를 유발한다고 인식하

154) 前揭書：『精校黃帝內經靈樞』, p.275.

155) 前揭書：『精校黃帝內經素問』, pp.80~81.

156) 郭靄春 主編：『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127.

157) 前揭書：『精校黃帝內經素問』, p.189.

158) 前揭書：『小兒藥證直訣』 「記嘗所治病二十三證」, pp.48~49.

159) 上揭書：『記嘗所治病二十三證』, p.48.

160) 上揭書：『記嘗所治病二十三證』, p.49.

161) 上揭書：『記嘗所治病二十三證』, p.49.

162) 上揭書：『記嘗所治病二十三證』, p.49.

여, 이를 다스림에 있어 먼저 白虎湯으로 陽明의 燥邪를 淸하고 白金并子로 胃腸의 食積을 제거한 다음 陰을 滋養하고 淸肺하여 涼心安神의 약물로 虛熱을 물리치고 津液을 충족시켜 精氣를 회복하게 하였다.¹⁶³⁾

특이한 점은 점진적으로 약물의 용량을 감소시킨 것인데, 이는 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進한 것이다. 이는 『素問·五常政大論』의 “大毒治病, 十去其六”¹⁶⁴⁾와 『素問·六元正氣大論』의 “衰其大半而止”¹⁶⁵⁾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있어, 약물의 남용보다는 臟腑氣血의 調和에 힘써 病證을 물리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㉔ 方劑를 精專하게 구성

錢씨는 『素問·標本病傳論』의 “謹察間甚, 以意調之, 間者并行, 甚者獨行”¹⁶⁶⁾하는 원칙에 따라 病勢가 급하고 邪氣가 實하며 熱盛한 경우에는 精專의 方劑를 사용하였다. 이를테면 ‘瀉心湯’에 있어 黃連의 苦寒한 味는 心火를 직접 꺾으며, ‘大黃丸’에 있어 大黃과 黃芩은 中焦의 邪熱을 淸瀉하며, ‘玉露散’에 있어 寒水石과 石膏와 甘草는 胃火를 淸瀉하며, ‘白餅子’에 있어 滑石과 輕粉과 半夏와 南星과 巴豆는 食積痰濕을 攻下한다. 또한 ‘抱龍丸’에 쓰黃과 膽星은 熱痰을 淸化하고, 雄黃은 祛痰하고 解毒하며, 辰砂와 麝香을 이용하여 開竅하고 安神하여 小兒가 痰熱로 內部가 막힌 것을 치료하고 急驚과 實熱 등을 다스린다. 이러한 약물들은 약효가 강력한 특징이 있기에, 錢씨는 香竄走泄에 관하여 金石이 重墮하는 약성을 이용하여 平肝鎮驚하고 醒神開竅하여 邪去正安한다고 하였다.

『閻氏小兒方論』에서 “治小兒驚風痰熱堅癖, 能不用水銀, 輕粉甚便, 如不得已用之, 僅去疾即止, 蓋腸胃易傷, 亦損口齒”¹⁶⁷⁾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錢씨의 처방에 관한 비판을 찾을 수 있어 소아 방제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錢씨는 『내경』의 이론을 충실히 따라 임상과 결부하여 소아의 생리·병리적인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五臟辨證의 강령을 확립하였고, 특히 面目의 望診을 강조하였고 脾胃를 중시하여 制方 등의 여러 방면에 병행하여 연구를 깊게 하였다.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小兒藥證直訣』에서는 『내경』이론을 심화하여 질병의 辨證論治하였다.

③ 古方을 응용하여 新方을 創製

163) 上揭書：『記嘗所治病二十三證』, p.49.

164) 前揭書：『精校黃帝內經素問』, p.148.

165) 上揭書：p.164.

166) 上揭書：p.125.

167) 前揭書：『小兒藥證直訣』『閻氏小兒方論·治小兒驚風痰熱』, p.108.

그는 古方을 응용함에 있어 ‘黃連丸’과 같은 경우 黃蓮은 苦降清熱하며, 木香은 芳烈行滯하여 원래 熱痢를 治療하는 처방에 錢씨는 ‘黃連丸’에 溫澁止瀉하는 豆蔻를 加하여 ‘豆蔻香蓮丸’이라 하였고, 苦溫澁腸한 訶子肉을 加하여 ‘小香連丸’이라 하였고, 去寒하는 白附子를 加하여 ‘白附子香連丸’, 豆蔻仁和 訶子肉과 沒石子를 加하여 ‘沒面子丸’이라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五方은 모두 小兒의 腹痛과 瀉痢諸症을 治療하는 데는 목적이 같지만, 寒熱通澁에 따른 성질에 의거하여 處方을 變通시키고 있다.

또 ‘香蓮丸’에서 木香을 去하고 陳橘皮를 加해서 ‘橘蓮丸’이라 하여 小兒의 疳瘦를 治療하니, 清熱利氣의 처방을 消食和氣의 처방으로 變換시키고 있다.¹⁶⁸⁾

그가 古方을 응용하여 新方을 創製함에 있어 한편으로 臟腑의 功能 회복과 상호간의 整體 관계에도 주의하였는데, 이를테면 ‘瀉白散’의 경우는 瀉肺化痰、降逆乎喘하는 桑白皮를 제거하고 滋陰退熱하는 地骨皮와 益胃和中하는 甘草와 粳米를 사용하여 瀉實顧虛、瀉肺顧脾의 목적을 이루었는데 李時珍은 이를 두고 “瀉肺, 諸方之准繩”이라고 하였다.¹⁶⁹⁾

또 ‘益黃散’의 경우 青陳皮와 木香으로 理氣燥濕、芳香化濁하고, 訶子로 澁腸하며 甘草는 守中하였는바 正補의 藥물은 없더라도 方名을 補脾라 하였으니 立方의 妙를 알 수 있다.

劑型의 方面에 있어 그가 사용한 135方을 보면 丸劑가 71首、散劑가 45首、膏劑가 6首、外用方이 7首、湯劑가 6首로 丸, 散, 膏가 主가 되었다.

④ 五臟辨證에 따른 方劑

錢씨는 五臟辨證을 강조하고 임상에 있어 오장변증의 規律에 따른 처방을 사용하였으니,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方劑 方面에 있어 心實에 ‘瀉心湯’을、心驚에 ‘導赤散’을、心虛에 ‘安神丸’을、肝實에 ‘瀉青丸’을、肝虛에 ‘地黃丸’을、脾實에 ‘瀉黃散’을、脾虛에 ‘益黃散’을、肺實에 ‘瀉白散’을、肺虛에 ‘阿膠散’을、腎虛에 ‘地黃丸’을 사용하였다.

本草 方面에서 腎陰不足에 熟地黃을、肺熱氣喘에 桑白皮과 馬兜鈴을、手掐眉目鼻面に 桔梗을、咬牙와 尿赤에 木通과 竹茹를 사용하였고, 上吐下瀉와 口渴飲水에 藿香、白朮、人蔘、葛根을 사용하였고, 安心鎮驚에 茯苓、朱砂、甘草를 사용하였고, 相火熾盛에 青黛、龍膽草를 사용하였고, 驚風에 ‘抱龍丸’을 사용하였고, 夜啼에 蟬花를 腹中虛脹에 川椒와 蝎尾를 사용하였다.¹⁷⁰⁾

168) 前掲書：『兒科宗師錢仲陽』, pp.20~22.

169) 李時珍 著：『本草綱目』《文淵閣四庫全書》卷四十二, 서울, 麗江出版社, 1988, p.93.

3. 錢乙의 學術思想이 後世에 미친 影響

1) 學術思想의 流派

儒의 門戶는 宋에서 나뉘었고 醫의 門戶는 金元에서 나뉘었다. 北宋 시기에 활동한 錢씨는 ‘新學啓興’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학설을 闡發하였고, 특히 소아과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소아과는 학과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錢씨 이후로 金元四大家의 학술적 영향 아래 소아과 영역에서도 점차 학과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醫史學的으로 小兒科 學派에 관한 분류는 ‘麻疹’에 관한 認識에 따른 治法의 차이에 따른 학문적 분류로 요약될 수 있다.

南宋의 陳文中이 두각을 나타내어 당시 ‘痘癩’ 등에 관한 급성 전염병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 陳씨는 錢씨가 ‘抱龍丸’、‘百祥丸’、‘生犀散’ 등의 寒涼한 약물로 痘癩을 치료하는 부분에 異議를 제기하여 만약 寒涼으로 妄投하면 冷氣가 內攻하여 濕이 脾胃를 損하여 腹脹、喘悶、寒戰齒牙에 이르러 難治됨을 두려워하여 桂、附、丁香 등의 燥熱溫補의 약물로 ‘두마’를 치료를 제시하였다.

劉河間은 寒涼派의 宗祖로 錢씨와 醫觀이 近接하며, 李東垣은 溫補派의 宗祖로 陳씨와 醫觀이 비슷하다. 실제로 錢씨는 治痘함에 寒涼驅下의 치법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溫燥의 약물의 사용에 대한 반발이었고, 陳씨가 治痘함에 燥熱한 약물을 사용함은 『局方』之學을 계승하는 관점이었다. 이와 같이 治痘에 있어 寒溫의 二派를 형성하여 宋·金 시대 이후 소아과 학술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쳤다.¹⁷¹⁾

2) 後世에 미친 影響

(1) 小兒科學에 미친 影響

錢씨의 소아 생리 병리의 특징적인 견해는 소아과 오장변증의 강령과 소아 비위에 중점을 둔 것이다. 錢씨와 같은 시대의 董汲과 閻孝忠는 錢씨의 학술적인 추종자이며, 이를 계승한 南宋·劉昉의 『幼幼新書』와 不著姓氏의 『小兒衛生總微論方』에 『직결』의

170) 前掲書：『兒科宗師錢仲陽』, pp.21~22.

171) 上掲書：pp.28~29.

醫案、醫論、方劑가 수록되어 기재되고 있다. 明代 薛己의 『保嬰撮要』는 錢씨의 오장변증의 학설을 밝혀 『직결』에 註釋을 달아 경험적인 醫案을 增補하여 錢씨의 학설을 개발하였고,¹⁷²⁾ 魯們嗣이 『嬰童百問』¹⁷³⁾ 등에 錢씨의 학설을 모아서 問答를 작성하였다. 이 밖에 清代 周震의 『幼料指南』와 陳復正의 『幼幼集成』¹⁷⁴⁾ 등에 錢씨의 문장을 채록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後世에 錢씨의 학설 사상을 많이 받은 明代의 萬全과 清代의 吳瑭, 民國의 惲樹珏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萬全에 미친 影響

『직결』은 오장변증의 강령을 두어 서술한 의서이다. 錢씨는 小兒의 五臟熱症을 外邪가 入裏하여 化熱하거나 혹은 他臟에서 移熱轉變하여 대부분 實證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그 가운데 心과 肝은 實熱이 대부분이며, 腎은 實熱이 없고, 肺와 脾는 虛熱俱備함으로 보았다.

소아의 五臟 熱病은 面部에 일정한 반응을 나타내며, 五臟 寒病은 肺熱外寒과 脾胃 虛實을 제외하고 언급한 바는 없다. 錢씨의 五臟 補瀉에 따른 처방 가운데 心、肺、脾 三臟은 有補有瀉하며, 肝은 有瀉無補하며, 腎은 有補無瀉의 원칙을 제시하였다.¹⁷⁵⁾

萬全은 위에서 언급한 錢씨의 학술적 견해를 근거로 五臟 가운데 “肝常有餘, 脾常不足. 予亦曰：心常有餘而肺常不足……腎常虛, 陰常不足, 陽常有餘之說”¹⁷⁶⁾이라 주장하여 錢씨의 言外之意를 밝혔다.

또한 萬씨는 “蓋肝之有餘者, 肝屬木, 旺于春, 春乃少陽之氣, 萬物之所資以發生者也. 兒之初生, 曰芽兒者, 謂如草木之芽, 受氣初生, 其氣方盛, 亦少陽之氣方長已未已, 故日肝有餘, 有餘者, 乃陽自然有餘也. 脾常不足者, 脾司土氣, 兒之初生, 所飲食者乳耳, 水谷未入, 脾未用事, 其氣尚弱, 故日不足. 不足者, 乃谷氣之自然不足也. 心亦有餘者, 心屬火, 旺于夏, 所謂壯火之氣也. 腎主虛者, 此父母有生之後, 稟氣不足之謂也. 肺亦不足者, 肺爲嬌臟, 難調而易傷也. 脾肺皆屬太陰, 天地之寒熱傷人也, 感則肺先受之, 水穀之寒熱傷人也, 感則脾先受之, 故曰脾肺皆不足.”¹⁷⁷⁾라 하였으니, 後世에서 논술한 小兒 五臟의 有

172) 薛己 著：『保嬰撮要』《文淵閣四庫全書》卷三十二,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86, p118, p120, p124, p128, p133, p156.

173) 魯伯嗣 撰：『嬰童百問』, 上海, 上海書店, 1985

：卷1의 「五臟所生」, 「五臟病證」篇에 錢씨의 학설이 많이 導入되었다.

174) 陳復正 著：『幼幼集成』,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2

：卷1의 「脈法」部와 卷 2, 3, 4 「方藥」部 가운데 『直訣』의 內容을 많이 포함되어 있다.

175) 萬全 著：『育嬰秘訣』「五臟證治總論」《萬密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6, p.450.

176) 上揭書：『育嬰秘訣』「五臟證治總論」「腎臟證治」, p.450, p.455.

177) 上揭書：『育嬰秘訣』「五臟證治總論」, p.450.

餘、不足의 학설은 錢씨로부터 根源되며 萬全에게서 그 학설이 提倡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萬씨는 錢씨의 五臟 證治法則에 따라 脾胃病에 관하여 闡發한 바가 있다.

소아의 乳食不調와 易飢易飽에 관하여 인식하기를 “飽하면 傷脾하고, 때문에 소아의 병은 胃病이 가장 많고, 만약 五臟에 병이 있어 補瀉를 사용함에 있어 胃氣를 犯하지 않도록 慎重해야 한다.”¹⁷⁸⁾고 하였다. 구체적인 調治에 있어 “脾熱者에는 ‘瀉黃散’을 胃熱者에는 ‘人參白朮湯’을, 脾胃寒者에는 ‘理中湯·丸’을, 脾胃虛者에는 ‘異功散’、‘調元湯’、‘人參白朮散’、‘養脾丸’을, 傷食者에는 ‘消積丸’이나 ‘保和丸’을 宿食成積者에는 ‘枳朮大黃丸’을, 濕勝者에는 ‘胃苓丸’을 欲成疳者에는 ‘肥兒丸’을 已成疳者에는 ‘集聖丸’을 사용하여 다스린다”¹⁷⁹⁾고 하였다. 만약 小兒가 小食하는데 易飽할 것 같으면 “胃之不受, 脾之不能消”¹⁸⁰⁾이므로 마땅히 運脾之陽과 養胃之陰에 치료 목적을 두어 ‘錢氏異功散’과 ‘小健中湯’을 合方하여 主治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萬씨는 錢씨의 ‘吐瀉既久, 則變生緩驚, 或爲疳病’¹⁸¹⁾과 ‘飲食傷則成疳’¹⁸²⁾과 ‘諸疳皆脾胃病’¹⁸³⁾의 학술적 관점을 계승하고 있다.

② 吳塘에 미친 影響

吳塘은 清代의 저명한 溫病學家로서 葉天士의 『臨證指南醫案』을 總結하고 자신의 임상 경험을 결합시켜 『溫病條辨』을 저술하였고, 三焦立論에 따라 葉씨의 학술 사상을 闡發하였다. 『은병조변』 가운데 「解兒難」一卷은 錢씨의 학술 사상을 바탕 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해아난」에서 제시한 小兒의 ‘治陰治陽’의 학설은 소아의 성장과 발육 단계에 따라 체질적인 특징과 병리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¹⁸⁴⁾

소아의 장부는 嬌嫩하고 形氣이 충만 되지 못하여 질병의 방어 능력이 허약한 생리적인 특징을 개괄하고, 이 때문에 밖으로는 六淫이 침범하기 쉽고 안으로는 飲食에 의하여 손상 받기 쉬워 일단 병이 되면 病情이 惡化되기 쉽다는 관점에서 “其臟腑薄, 藩籬疏, 易于傳變. 肌膚嫩, 神氣怯, 易于感觸. 其用藥也, 稍呆則滯, 稍重則傷, 迨不對症, 莫知其鄉.”¹⁸⁵⁾라 하였다. 바로 이러한 논술은 錢씨의 ‘臟腑柔弱’、‘肌膚嫩怯’、‘易虛易

178) 上揭書：『育嬰秘訣』「脾臟證治」, pp.452~454.

179) 上揭書：『脾臟證治』, p.452.

180) 萬全 著：『幼科發揮』「調理脾胃」《萬密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6, p.416.

181) 上揭書：『原病論』, p.374.

182) 上揭書：『疳』, p.414.

183) 上揭書：『疳』, p.414.

184) 吳塘 著：『溫病條辨』「解兒難題詞」,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90.

實’、‘易寒易熱’의 소아 생리 병증의 특징을 밝힌 것이라 하겠다.

“病久而瘥者，非傷脾陽，肝木來乘。卽傷胃汁肝陰，肝風鳴張，一虛寒，一虛熱，爲難治也……如夏月，小兒暑濕泄瀉暴注，一晝夜百數十行，下多亡陰，肝乘致瘥”¹⁸⁶⁾라하고 ‘連梅湯’으로 滋養津液하고 ‘大·小定風珠’과 ‘三甲復脈湯’으로 填陰柔肝하여 胃津耗損、肝腎陰竭로 인한 心神搖亂、虛風暗動、搐搦瘈瘲의 瘥을 다스렸으니, 吳씨는 錢씨를 繼承하여 慢驚風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켜 用滋補法의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吳씨는 소아의 체질에 관련하여 “小兒，春令也，本方也。木德也，其味酸甘”¹⁸⁷⁾이라 하여 ‘錢氏地黃丸’에 의한 小兒科의 用藥說에 있어 甘多酸少한 약물을 善用할 것을 주장하였다.

吳씨는 恣用苦寒한 약물을 善用함에 反對하고 存陰退熱을 첫 번째의 묘책으로 생각하여 “以存陰退熱，莫過錢氏六味之酸過化陰”¹⁸⁸⁾이라 하였다. 이러한 吳씨의 학설은 실제로 錢씨의 ‘地黃丸’의 方論을 발전시킨 것이라 하겠다.

③ 惲樹珏에 미친 影響

惲樹珏은 자식을 많이 둔 父親이었는데 일찍이 三男二女가 夭折되고 나서 醫學에 뜻을 두었다. 惲씨는 『직결』의 중요성에 관하여 인식하기를 “『顛顛經』失傳한 後에 古意가 있는 학자들은 반드시 『직결』一書を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錢씨는 早晨、日午、日晚、夜間發搐은 肝、心、肺、腎의 四臟이 分主한다 하였는데, 惲씨는 ‘用意被深遠’이라 하여 ‘이른바 肝病은 肝病이 아니며, 心病은 心病이 아니고 臟氣病이다. 臟氣가 主하는 바로 生、長、化、收、藏이 있다. 肝病은 逆生氣하고, 心病은 逆長氣하며, 肺病은 逆收氣하며, 腎病은 逆藏氣한다. 寅卯, 巳午, 申酉, 亥子라 함은 하루의 生、長、化、收、藏이다. 『내경』에서는 이에 관한 이치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술하고 있는데, 生、長、壯、老는 一生을 의미함이요, 生、長、化、收、藏은 一年을 의미한 것이다. 鷄鳴、平旦、日中、合夜는 一日을 의미함이다. 지금 소아의 질병을 하루에 二分과 二至로 구분한 것은 『내경』의 이치와 상합한다”¹⁸⁹⁾고 하여 人間과 自然과의 整體觀, 時間과 症候의 내재적인 관련성에 관하여 時空觀을 밝히고 있다.

惲씨는 錢씨가 驚風、發搐을 다스림에 ‘地黃丸’、‘瀉青丸’、‘益黃散’을 善用함에

185) 上揭書：「兒科總論」, p.191.

186) 上揭書：「濕座或問篇」, p.194.

187) 上揭書：「兒科用藥論」, p.192.

188) 上揭書：「兒科用藥論」, p.192.

： “……以存陰退熱，莫過錢氏六味之酸過化陰……”

189) 前揭書：「兒科宗師錢仲陽」, p.32.

있어 方義와 임상 활용 방법에 관하여 구별하여 언급하길 “이상 다섯 처방은 가장 平隱適當한 약제로 변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나, 어려운 것은 변증의 정확성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¹⁹⁰⁾

(2) 易水學派에 미친 影響

錢씨의 五臟虛實에 따른 證治는 張元素의 臟腑 病機辨證에 관하여 큰 영향을 미쳤다. 易水學派들은 錢씨의 臨證治法에 관하여 取用한 것이 많았는데 ‘地黃丸’, ‘瀉青丸’, ‘安神丸’, ‘瀉心湯’, ‘導赤散’, ‘益黃散’, ‘瀉黃散’, ‘瀉白散’, ‘阿膠散’은 五臟 補瀉에 따른 표준 방제이다.

소아 비위의 학술적 관점을 중시하여 論治한 바 張元素를 거쳐 李東垣까지 영향을 미쳤으니, 張·李는 錢씨의 ‘脾胃虛衰, 四肢不據, 百病由生’ 학설을 따르고 있다.

李씨는 ‘黃芪湯’을 창제하여 ‘慢驚’을 다스렸고 말하길 “驚에 嘔吐와 腹痛과 瀉痢靑白을 수반하는 경우는 ‘益黃散’이 聖藥이라”고 하였다.¹⁹¹⁾

錢씨의 小兒 食積發熱에 관한 病機를 ‘脾胃虛而發熱’¹⁹²⁾이라 인식하여 ‘白朮散’을 소아과에 있어 補氣升提와 甘溫除熱하는 처방이라 하였다.

李씨는 『內外傷辨感論』에서 腹痛과 中氣虛弱을 다스림에 있어 “仲景小健中湯加黃芪, 或異功散加 芍藥”이라 하였고, 渴瀉傷津을 다스림에 있어 “白朮散倍葛根”이라 하였다.¹⁹³⁾

『脾胃論』에서 小兒의 三焦積熱、 目赤腫痛、 口舌生瘡、 煩燥、 便秘 및 五臟具熱之痛、 癩、 瘡瘍、 痔疾、 肛裂의 諸病을 다스림에 『직결』의 ‘三黃丸’을 사용할 것임을 주장하였다.¹⁹⁴⁾

李씨는 升陽散火의 관점으로 治法을 활용하였으니 이를테면 升陽散火湯、 補中益氣湯、 升陽除濕湯、 清胃散 등의 처방에는 升麻、 柴胡、 羌活、 葛根 등의 약물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는 모두 ‘瀉黃散’、 ‘瀉青丸’、 ‘敗毒散’、 ‘白朮散’ 처방 가운데 治風藥을 사용하여 散鬱火하는 목적을 두고 있으니,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보면 李씨의 脾胃學說은 錢씨에게서 많은 影響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病因學的 側面에 있어 錢씨는 소아의 생리 병리적인 특징에 치중하여 調益脾胃를

190) 上揭書 : p.32.

191) 李東垣 著 : 『蘭室秘藏』 「小兒門」, 《東垣十種醫書》, 台北, 五什出版社, 1973, p.658.

192) 前揭書 : 『小兒藥證直訣』 「腹中有癖」, p.30.

193) 李東垣 著 : 『內外傷辨感論』 《東垣十種醫書》, 台北, 五什出版社, 1973, pp.35~37.

194) 李東垣 著 : 『脾胃論』 《文淵閣四庫全書》 卷十三, 서울, 麗江出版社, 1988, p.436.

중시하였고 李씨는 성인의 勞倦肌飽에 착안하여 溫補脾胃의 治法을 강조하였으니, 두 사람이 根據한 바는 다르지만 治法에 있어 서로 관련된 學說을 내재하고 있다.

(3) 滋陰學派에 미친 影響

錢씨는 ‘地黃丸’을 만들어 小兒의 腎陰을 補益함에 중점을 두고 ‘壯水之主, 以鎮陽光’¹⁹⁵⁾의 이론을 전제하였다. 이 처방을 河間이 사용하여 癆熱骨蒸 등의 陰虛證을 치료하였고, 東垣은 이를 기초하여 益陰하는 腎氣丸(澤瀉, 茯苓, 生地黃, 牡丹皮, 山茱萸, 當歸梢, 五味子, 乾山藥, 柴胡, 熟地黃)을 倉方하였다.

朱丹溪는 이 뜻을 본받아 大補陰丸(黃柏, 知母, 熟地, 龜板, 猪脊髓)을 倉方하였다.¹⁹⁶⁾ 『丹溪心法·補損』에는 “薛己가 直補眞陰의 聖藥으로 사용하였다”¹⁹⁷⁾고 하였으며, 明代 趙獻可가 이 처방을 칭찬하기를 “腎虛하여 火를 制하지 못하는데 사용하고, 水氣를 壯하는데 主가 되고 陽光을 鎮한다”¹⁹⁸⁾고 하였다.

‘地黃丸’은 지금까지도 흔히 사용하는 처방이며 加減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¹⁹⁹⁾

『醫宗己任編』 加 五味子. 名都氣丸, 治陰虛氣喘.

『醫級』 加 枸杞, 菊花. 名杞菊地黃丸, 治陰虛眼花歧視.

加 麥冬, 五味子. 名八仙長壽丸, 治陰虛喘咳血.

『醫宗金鑑』 加 知母, 黃柏. 名知栢地黃丸, 治陰虛火旺, 骨蒸潮熱.

『景岳全書』 減 丹皮, 茯苓, 澤瀉 加 枸杞, 牛膝, 兔絲子, 龜板, 鹿膠.

治腎水不足, 不能滋養樂衛, 漸至衰弱.

‘地黃丸’은 후세에 醫家들 대부분이 중시하는 처방이며, 補腎作用을 가진 處方 가운데 準據가 되어 滋陰學派의 先河을 이루게 되었다.

(4) 溫病學派에 미친 影響

驚風、發搐은 소아과에서 흔히 관찰되는 症候로 小兒의 氣血未實、神氣未充、肝常有餘、眞陰不足、柔不濟剛으로 外因으로는 火熱驚恐한 경우, 內因으로는 痰食積

195) 前掲書：『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127.

196) 盧和 撰：『丹溪纂要』 「虛損」 《金元四大家醫學全書》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6, pp.1288~1289.

197) 朱震亨 著：『丹溪心法』附餘 卷十九 「補損」篇,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675.

198) 趙獻可 著：『醫貫』 「六味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78.

199) 前掲書：『兒科宗師錢仲陽』, p.34.

滯한 경우에 있어 쉽게 肝風內動、心火上炎、風熱相博하여 神昏發搐하게 된다. 또한 小兒의 外感熱病、痘麻臍風、疳積痰食、驚慌癲癇 등의 원인은 모두 驚風、發搐하게 한다.

錢씨는 陽明腑實을 攻下하는 治법으로 泄熱開竅하는 것 외에도 清熱平肝、芳化涼開의 治법을 세웠는데 ‘涼驚丸’²⁰⁰과 ‘抱龍丸’²⁰¹은 소아의 熱病으로 인한 驚搐神昏의 증상 유효한 방제이다.

『明醫雜著』의 ‘牛黃抱龍丸’²⁰²(本方加牛黃)과 『活幼心書』의 ‘琥珀抱龍丸’²⁰³(本方加琥珀、人參、甘草、枳實、茯苓、山藥、金箔、檀香、去麝香)은 모두 이 처방을 가감하여 구성한 것이다.

『직결』附篇인 『閻氏小兒方論』 가운데 ‘至寶丹’²⁰⁴과 ‘紫雪丹’²⁰⁵은 明·清 시대 溫病學家들이 采納한 방제로 芳香開竅、解毒醒神、清熱涼血의 治법을 응용한 방제이다. 그 밖에 『직결』에서 제시한 “熱證疏利, 或解化後無虛證, 勿溫補, 熱必隨生”²⁰⁶의 관점은 후대 溫病學說에 관하여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에 관하여 葉桂는 “清涼到十分之六七, 往往熱減身寒者, 不可就傳云虛實而投補劑, 恐爐烟雖食, 灰中有火也”²⁰⁷라 하여 錢씨의 학설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5) 方劑學에 미친 影響

錢씨의 處方은 이치와 治법이 신중하고 藥물의 구성은 『靈樞』와 『素問』의 要旨를 深得하여 소아과 영역을 개척하여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錢씨의 五臟辨證은 易水學脈의 張元素로부터 발전되어 劉元素의 『宣明論方』과 陳無擇의 『三因極一病證方論』과 嚴用和의 『濟生方』 등의 方書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고, ‘地黃丸’이 補腎陰하는 學說사상은 후대 李東垣의 ‘脾胃學說’과 朱丹溪의 ‘陽有餘, 陰不足’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²⁰⁸

200) 前掲書：『小兒藥證直訣』「涼驚圓」, p.54.

201) 上掲書：「抱龍圓」, p.79.

202) 薛己撰：『薛氏醫案』《文淵閣四庫全書》卷三十一,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575

： “牛黃抱龍丸…… 牛黃, 雄黃, 辰砂, 天竺黃 各 四錢. 麝香 一錢. 牛膽南星.”

203) 曾世榮撰：『活幼心書』卷下,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pp.46~47.

： “琥珀抱龍丸…… 眞琥珀, 天竺黃, 檀香, 人參, 白茯苓 各 一兩半, 粉州, 枳殼, 枳實 各 一兩, 水飛朱砂 一兩, 山藥 一斤, 南星 一兩, 金箔 百片.”

204) 閻孝忠撰：『閻氏小兒方論』「至寶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p.120~121.

205) 上掲書：「紫雪」, p.121.

206) 前掲書：『小兒藥證直訣』「雜病證」, pp.37~38.

207) 葉天士撰：『溫熱論』《葉天士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6, p.1.

明代의 薛己、萬全、魯伯嗣과 清代의 陳復正、夏鼎 등은 그의 이론을 추종하여 자신의 학설을 펼쳤고, 특히 薛씨는 “錢乙之法，可而日用. 錢氏之方，可而時省也”²⁰⁹라 錢씨의 학설 사상이 후세에 소아과의 범주를 뛰어 넘고 있음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錢씨의 소아 外感熱病 등에 관한 임상 경험은 清代 溫病學家에게 영향을 끼쳐 小兒의 脾腎調理를 중시한 升提舉陷、甘溫除熱의 治法을 열게 되었다.

3) 學術思想의 總括

錢乙이 小兒科에 있어서의 공헌은 『직결』에 閻孝忠의 序文에서 “治小兒賅括古今，又多自得”²¹⁰의 언급함과 같다. 그는 소아의 생리、병리적인 특징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오장 병증의 강령을 확립하였고, 또한 많은 小兒方劑를 化裁하고 自制하여 小兒科學의 基礎를 세웠다. 그 후 明代 薛己, 萬全, 魯伯嗣, 清代 陳復正 등 小兒科 學家들이 모두 『직결』을 기초하고 또한 발전시켰다. 萬全은 錢씨의 오장변증 강령을 근거로 진일보시켜 五臟 가운데 “肝常有餘，脾常不足，腎常虛”²¹¹과 “心常有餘，肺常不足”²¹²으로 ‘陽常有餘，陰常不足’의 학설을 제시하여 역시 小兒의 생리 병리적인 특징을 闡發하였다.

錢씨의 오장변증은 易水學派의 창시자인 張元素가 따랐고, 金元四大家 모두가 錢씨의 학설에 일정한 영향을 받았다.

그는 소아의 外感熱病으로 인한 神昏驚厥을 치료하는데 清涼解毒、芳香開竅 등의 치법을 중시한 것을 清代 溫病學家들이 수용하였다.

小兒의 脾胃를 중시하여 措置함에 있어 “脾胃虛衰，四肢不舉，諸邪遂生”²¹³의 論點과 甘溫之劑인 ‘白朮散’²¹⁴을 제시하여 훗날 李杲가 ‘脾胃內傷’학설을 제창함에 일정한 선도를 하였다.

‘金匱腎氣丸’을 化裁하여 만든 ‘地黃圓’²¹⁵은 전적으로 補腎陰하는데, 明代의 薛己와 趙獻可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眞陰、眞水을 補하는 專劑를 發明하였기에, 일반적으로 錢씨가 滋陰學派의 先驅者로 看做된다.

208) 前揭書：『兒科宗師錢仲陽』, p.35.

209) 錢乙 著·薛己 注：『校注錢氏小兒直訣』「序」《薛氏醫案》，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7，p.619.

210) 前揭書：『閻氏小兒方論』「治小兒驚風痰熱」, p.108.

211) 前揭書：『育嬰秘訣』「五臟證治總論」, p.450.

212) 上揭書：『五臟證治總論』, p.450.

213) 前揭書：『小兒藥證直訣』「腹中有癖」, p.30.

214) 上揭書：『白朮散』, p.56.

215) 上揭書：『地黃圓』, p.56.

이 밖에 錢씨가 만든 많은 有效한 方藥이 오늘날에도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어, 그가 동양의학에 끼친 영향은 소아과의 영역을 훨씬 넘어 섰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조건의 한계로 말미암아 『직결』도 몇몇 부족한 곳이 있다.

예를 들면 五臟辨証 가운데 五臟을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나 六腑는 생략되어 있다. 五臟 사이를 논술함에 있어서 臟腑와 氣候時令 사이의 상호 관계 및 그 用方이 너무나 기계적이다. 氣血陰陽虛實의 辨證論治에 대해서도 全面的이지 못하다. 心腎의 陽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잘못은 덮어둘 수 없지만 錢乙의 공적은 『四庫全書目錄提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小兒經方, 千古罕見, 自乙始別爲專門, 而其書亦爲幼科之鼻祖. 後人得其緒論, 往往有回生之功”²¹⁶⁾이라 칭찬하였다.

Ⅲ. 結 論

論者は 本論의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錢乙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1. 錢乙의 著書로는 閻季忠이 編輯한 『小兒藥證直訣』이 傳해 내려오며, 그 외 早期失傳한 『傷寒論指微』과 『嬰幼論』 등이 있다.

2. 錢乙의 『직결』은 『顛顛經』에 영향받았다고 하지만 生理、病理、方劑의 內容을 비교하면 『顛顛經』은 『直訣』의 근본적인 뿌리가 될 수 없고, 『內經』、 『傷寒論』、 『金匱要略』、 『神農本草經』、 『太平聖惠方』 등을 계승하여 錢씨가 소아과 분야에 있어 직접적인 臨床經驗을 總括하여 논술하고 있다.

3. 소아 질환에 관하여 진단상의 어려움과 6세 이하에 관한 언급이 『黃帝內經』에는 없고 北宋 이전에는 소아 질환에 관련한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을 극복하여, 錢씨는 『小兒藥證直訣』에서 小兒科學의 系統性을 처음으로 갖추어 발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216) 裘沛然 외22人 編著 : 『中國醫籍通考』卷三,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p.4033.

4. 소아 질환의 진단 분야에 있어 四診合參하면서도 특히 望診을 重視하였고, 아울러 五臟辨證을 긴밀하게 결합시켜 소아의 질병을 진단하였다.

5. 錢씨가 주장한 五臟辨證의 방법은 『黃帝內經』의 整體觀을 기초로 하여 臨床의 經驗을 토대로 天人相應의 觀點을 確立한 것으로, 먼저 主證을 明確히 밝히고 다음 기타 症候의 관계를 밝힌 다음 虛、實、寒、熱의 屬性을 判別하여 계통적인 소아의 생리기능 관계로 귀납시켰다.

6. 錢씨는 당시까지 未洽한 분야인 ‘斑疹’에 관하여 연구를 중시하였고, 당시에 ‘急驚’을 치료하는 약물로 ‘慢驚’을 다스리는 습관을 비판하고, 그는 ‘急驚’은 涼瀉하고 ‘慢驚’은 溫補의 방법으로 나누어 다스리고 ‘從肝主風, 心主驚’의 학설을 제창하고 ‘驚風’ 학설을 확립하였다.

7. 당시에 香燥한 藥物을 편향되게 濫用함에 반대하여 錢씨는 柔潤한 性質의 약물을 사용하여 처방을 구성하였고, 方藥 方面에 있어 五臟의 虛實寒熱에 따른 辨證에 투철하여 攻不傷正、補不滯邪、消補兼施하는 치료를 강조하였다.

8. 당시에 소아과에 관한 학과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나, 錢씨의 학술적인 영향을 받은 金元四大家로부터 소아과 영역에서도 점차 학과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溫燥한 약물로 ‘痘癩’를 치료함에 반대한 錢씨는 寒涼한 약물로 驅下한 치법을 응용하여 後世 寒涼派에 영향을 미쳤으며, 陳文中은 燥熱溫補의 약물로 ‘痘癩’를 치료하여 溫補派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宋金 이래로 ‘痘癩’를 다스림에 있어 寒溫 二派를 형성시켜 소아과 학술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쳤다.

9. 錢씨의 학술 사상이 後人에 미친 영향으로는 明代의 萬全과 清代의 吳塘과 民國의 惲樹珏에게 가장 많이 미쳤다. 萬全은 錢씨의 五臟辨證 학설을 밝혀 小兒 五臟의 有餘、不足之說을 제창하였고, 吳塘은 錢씨의 小兒體質說과 小兒科의 用藥論을 밝혀 錢씨가 주장한 臟腑柔弱、肌骨嫩怯、易虛易實、易寒易熱 등 소아의 생리 병리적인 특징을 밝혔고, 惲樹珏은 錢씨가 말한 天人相應觀과 時間과 症候의 내재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驚風、發搐을 다스리는 錢씨의 ‘地黃丸’、‘瀉青丸’、‘益黃散’에 관하여 方義와 臨症活用을 闡發하였다.

10. 錢씨의 五臟虛實에 관한 證治는 張元素의 臟腑 病機 辨證에 관하여 영향을 미쳤는데, 張元素가 사용한 ‘地黃丸’、‘瀉青丸’、‘瀉心湯’、‘益黃散’、‘瀉黃散’ 등은 五臟 補瀉에 있어 표준이 되는 方劑로 錢씨의 治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錢씨가 小兒의 脾胃를 重視한 觀點은 補土派인 李東垣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소아 補益 腎陰에 중점을 두고 구성한 ‘地黃丸’은 朱震亨이 ‘大補陰丸’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등 金元四大家에 영향을 미쳤다.

11. 錢씨의 五臟辨證 學說에 있어 비록 五臟辨證에는 상세하게 논술하지만 六腑辨證에는 소홀하였고, 方藥 方面에 있어 驚疳을 다스리는 方劑는 맹렬한 독성을 지녔거나 광물성 약품을 많이 사용하여 현재 임상에서는 잘 쓸 수 없는 것은 결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錢씨의 의학 사상은 동양 의학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한의학 소아과 방면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을 심화시켰기에 앞으로 더욱 깊은 錢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IV. 參考文獻

1. 宋·錢乙 著, 閻孝忠 編輯: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2. 閻孝忠 著: 『閻氏小兒方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3. 俞景茂 著: 『兒科宗師錢仲陽』, 北京, 中國科學出版社, 1989.
4. 錢乙 著·薛己 注: 『校注錢氏小兒直訣』《薛氏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5. 洪元植 篇: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4.
6. 傅樂成 篇: 『中國通史』下, 서울, 宇鍾社, 1982.
7. 甄志亞 著: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1992.
8. 李經緯 著: 『中國醫學通史』, 人民衛生出版社, 2000.
9. 李昉 著: 『太平御覽』권722, 中華書局影印本, 1985.
10. 馬繼興 著: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1. 李茂如 외2人 編著：『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滙考』，人民衛生出版社，1994.
12. 裘沛然 외22人 編著：『中國醫籍通考』卷三，上海中醫學院出版社，1990.
13.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素問』，東洋醫學研究院，서울，1985.
14.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靈樞』，東洋醫學研究院，서울，1985.
15. 郭靄春 主編：『黃帝內經素問校注』，人民衛生出版社，1992.
16. 蔡仁植 譯：『金匱要略精解』，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1986.
17. 『太平聖惠方』 平常心出版社.
18. 簫源 외 5人 編輯：『永樂大典』卷九七八，北京. 人民衛生出版社，1986.
19. 司馬遷 撰：『史記』《四部備要》卷一百五，中華書局據武英殿本校刊. 1985.
20. 買維誠 編輯：『三百種醫籍錄』，黑龍江省新華書店，1982.
21. 孫思邈 著 李景榮 외5人 編輯：『備急千金要方校釋』，人民衛生出版社，1998.
22. 王燾 著：『外臺秘要』《文淵閣四庫全書》卷五，서울，驪江出版社，1988.
23. 巢元方 著：『巢氏諸病源候論』卷四十五《文淵閣四庫全書》卷二，서울，驪江出版社，1988.
24. 佚名 著：『顛顛經』《文淵閣四庫全書》卷六，서울，驪江出版社，1988.
25. 李東垣 著：『蘭室秘藏』《東垣十種醫書》，台北，五什出版社，1973.
26. 李東垣 著：『內外傷辨感論』《東垣十種醫書》，台北，五什出版社，1973.
27. 李東垣 著：『脾胃論』《文淵閣四庫全書》卷十三，서울，麗江出版社，1988.
28. 朱震亨 著：『丹溪心法』，서울，大星文化社，1990.
29. 薛己 著：『保嬰撮要』《文淵閣四庫全書》卷三十二，서울，驪江出版社，1988.
30. 薛己 撰：『薛氏醫案』《文淵閣四庫全書》卷三十一，서울. 驪江出版社，1988.
31. 趙獻可 著：『醫貫』，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32. 魯伯嗣 撰：『嬰童百問』，上海，上海書店，1985.
33. 張介賓 著：『景岳全書』下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95.
34. 李時珍 著：『本草綱目』《文淵閣四庫全書》卷四十二，서울，麗江出版社，1988.
35. 陳復正 著：『幼幼集成』，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62.
36. 曾世榮 撰：『活幼心書』卷下，北京，北京市中國書店，1985.
37. 萬全 著：『育嬰秘訣』《萬密齋醫學全書》，中國中醫藥出版社，北京，1996.
38. 萬全 著：『幼科發揮』《萬密齋醫學全書》，中國中醫藥出版社，北京，1996.

39. 吳塘 著：『溫病條辨』，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4.
40. 盧和 撰：『丹溪纂要』《金元四大家醫學全書》天津科學技術出版社，天津，1996.
41. 葉天士 著：『溫熱論』《葉天士醫學全書》，中國中醫藥出版社，北京，1996.
42. 張山雷 著·浙江省中醫管理局 編校：『小兒藥證直訣賡正』《張山雷醫集》下，人民衛生出版社，1995.